

24일 Market Index			
↓ 코스피	6696.96 (-215.99)	↑ 코스닥	813.33 (+11.39)
↓ 금리 (미국 9년)	3.836 (-0.018)	↓ 환율 (원·달러)	1383.60 (-2.90)

“AI 인재 모셔라” SK·현대·삼성 등 채용 키워드 ‘실행력’

주요기업 하반기 채용 스타트

SK하이닉스, 학력 제한 전면폐지
26일까지 서류 접수, 내년 1월 입사
현대차, SDV·AI 인재확보 핵심
내달 6개 부문서 92개 공고 예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 하반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인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는 물론 제조·철강·유통·식품 등 산업 전반에서 AI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신입과 경력으로 나눠 선발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AI 인재 채용 포문을 연 곳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신입 수시채용부터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성장 가능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반기 채용에서는 설계·소자·R&D·공정·양산기술 등 반도체 핵심 직무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AI활용 역량을 평가하는 한편 ‘반나절 심층면접’을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 신입 채용 서류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인적성 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입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9월 1~14일 연구개발·디자인·생산·제조·사업·기획·경영지원·IT 등 6개 부문에서 92개 공고를 내고 대규모 신입 채용에 나선다. SDV와 AI, 로보틱스 등 미래차 분야 인재 확보가 핵심이다. 현직자와 소통하는 커리어 라운지를 열고 우수 참여자에게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주는 등 ‘채용 마케팅’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전통적인 정기 공채 채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AI·반도체·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입 3급 공채를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진행하며, 9월 채용이 대표적인 하반기 공채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쯤 하반기 공채 일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LG그룹은 계열사별 직무 중심 채용과 수시 경력채용을 병행하고 있다. LG전자는 AI 엔지니어를 경력으로 영입하면서 LLM·RAG·AI 에이전트·데이터 파이프라인 등 실제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신입 역시 단순 전공보다 프로젝트와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 LG전자는 로봇·소프트웨어 등 R&D 분야 중심으로 하반기 채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철강 등 전통 제조업에서는 제조AI 자체가 별도 채용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AI 전문인력 채용에서



내년도 수능 원서접수 스타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L7면)

/뉴스

‘사무 DX’와 ‘제조 AI’를 구분해 선발했으며 AI·데이터 분석 역량과 함께 포트폴리오 제출과 AI 활용평가와 면접을 진행했다. 신입과 경력을 직무별로 구분해 채용하는 방식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비트코인 일주일새 22% ↑… 다시 ‘불장’

美 ‘바이백’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트럼프, 클래리티법 촉구 등 기대감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도 급상승세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만기 이전 재매입)으로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親) 가상자산 법안으로 꼽히는 ‘클래리티법’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정책적 기대감도 커진 영향이다.

24일 가상자산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께 1BTC당 7만7239.60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과 비교해 0.24% 상승한 수준으로, 지난 22일 이후 3일 연속으로 7만7000달러를 넘겨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의 주간 상승폭은 22.03%에 달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빠르게 올랐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일주일 동안 28.63% 상승했고, 3위 바이낸스(BNB)는 15.59% 올랐다. 시총 4위 리플(XRP)은 일주일 간 47.38% 급등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美 ‘바이백’에 유동성 공급

이달 초까지 부진을 지속했던 가상자산 가격이 최근 급등한 것은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의 영향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

간) 향후 3개월간 미 국채 바이백 규모를 기존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늘리고, 필요 시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적극적인 재매입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바이백 조치 이후 시장에는 대규모의 유동성이 풀려났으며, 위험자산에 선호 심리도 회복됐다. 자금이 장기간 저평가됐던 비트코인으로 몰려들자 가격이 상승했고,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도 일부 청산돼 가격의 추가 상승을 부추겼다.

◆‘클래리티법’ 기대감 재점화

친 가상자산법으로 평가받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올렸다.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과정을 규율하고 가상자산을 ‘상품성 자산’과 ‘증권성 자산’으로 분류해 중복 규제 가능성을 해소하는 법안이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증권성 가상자산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성 가상자산은 미 상품거래위원회(SFTC)가 관할하게 된다.

‘중복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XRP를 발행하는 리플(Ripple)은 XRP가 ‘상품성 자산’으로 분류되에도 일부 계약 형태의 증권성 논란을 이유로 SEC와 4년 간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성과급 60% 주식으로’… 찬반 투표 시작

SK하이닉스, PS 지급방식 ‘쟁점’
40% 현금, 60% 자사주 지급 내용
업계 주식연계 보상의 기준점 될 듯

SK하이닉스가 10년간 유지하기로 한 성과급 제도의 지급방식을 1년도 안 돼 손질하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사가 현금 중심의 초과이익분배금(PS)에 자사주 지급을 확대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와 함께 반도체업계의 주식 연계 보상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동조합은 이날부터 25일 오전까지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쟁점은 PS 지급방식이다. 노사는 지난해 PS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이번 잠정합의안은 자원 기준을 유지하면서 PS의 40%는 현금,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급 주식 수는 경영성과 발표일과 PS 현금 지급일, 주식 지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스

급일의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해 산정하며 주식 가치가 약화된 성과급보다 낮으면 차액도 보전한다.

성과급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PS 재원이 연간 영업이익의 10%로 정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98조152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PS 규모는 연간 실적에 확정된 이후 결정된다.

문제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지급방식이 달라지면서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성원 사이에서는 기존 합의를 다시 손질하는 데 대한 불만과 함께 노조가 주식 지급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과 주식을 연계하는 움직임은 삼성전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제한조건부주식 등 주식보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근속이나 개인 성과와 연계하는 방식이어서 전 직원 PS를 주식과 결합하는 SK하이닉스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표결은 국내 반도체업계의 주식 연계 보상 확대 흐름을 가늠할 사례로 주목된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까지 전 직원 성과급 지급에 주식을 확대 적용할 경우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 모두 주식 연계 보상을 강화하게 된다.

SK하이닉스 내부 관계자는 “10년간 유지하기로 한 성과급 지급방식을 1년도 안 돼 바꾸는 데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며 “주식 지급안을 노조가 받아들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한 총리 “제주 실종사건에 무한 책임 느껴…공정한 실종수사에 모든 노력”
/사진 뉴시스

▲홍익표, 대법관 임명제청 관련 “대통령 임명권 일부 침해…관행과 동떨어져”

▲조국 “노웅래 녹취 같이 듣자고?…한동훈 휴대전화도 같이 보자”

▲이준석 “이제 국민은 계엄 이유로 참아주지 않아…野 의견 들어야”

▲이진숙, 김민석 ‘모욕’ 고소…“여자 히틀러 표현, 정치적 비판 넘어선 악의적 공격”

▲강훈식, 野 특활비 내역 제출 요구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어려워”

한미약품, ‘근육 증가형 비만치료’ 잭팟… 3.5조 기술수출

제넨텍 ‘HM17321’ 라이선스 계약
올해 첫 국산 비만치료제 발매 예정
대사건강회복 중심 시장구도 재편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체중 감량은 물론 근육 보존, 체성분 개선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앞세워 독보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빅파마 로슈 그룹의 자회사 제넨텍과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관련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 신약 후보물질 ‘HM17321’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제넨텍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HM17321 개발, 제조 및 상업화·독점 권리를 확보했고 한미약품은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금금 1억 9000만 달러(약 2850억원)를 포함해 개발 및 상업화 성과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23억 달러(약 3조5000억원)를 수령하게 된다.

HM17321은 세계 최초 근육 증가형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이다.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비인크레틴 계열 약물로, 신경 펩타이드 호르몬인 ‘유로코르틴2(UCN2)’ 유사체다. 스트레스 반응 조절에 관여하는 코르티코르틴 방출 인자2(CRF2) 수용체를 표적하는 기전을 갖췄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기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기반 인크레틴 계열 치료제의 최대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근 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열 내 최초 신약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기존 비만치료제들은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에도 불구하고 골격근을 포함한 제지방 감소로 이어져 기초대사량 저하와 요요 현상을 유발한다. 반면 HM17321은 비임상 연구에서 선택적으로 지방량만 줄이면서 근육량과 근기능을 개선하는 독보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HM17321의 임상 개발 역시 차질 없이 순항 중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

ND)을 승인받은 한미약품은 현재 건강한 성인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약력학을 평가하는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임상 2상부터는 제넨텍이 개발을 이어받아 글로벌 상업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HM17321은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로 설계되어 단독 투여는 물론 기존 GLP-1 계열 치료제와의 고정용량복합제(FDC) 개발 및 병용 치료 전략으로 확장성까지 갖췄다.

아울러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경쟁력은 단일 물질에 그치지 않고 촘촘하게 구축된 ‘H.O.P(Hanmi Obesity Pipelin

e)’ 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올해 첫 국산 비만 치료제 발매를 앞뒀다. ‘에페글레나타이드(에페)’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한국인 체형과 대사 특성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한미약품은 국내 첫 비만약 상업화를 시작으로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만성 및 복합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펩타이드 기반 물질로 설계된 후속 파이프라인 ‘HM500197’ 역시 근 손실 보완에 중점을 두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도한 골격근 감소는 장기적인 체중 유지를 방해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를 ‘대사 건강 회복’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한미약품 최인영 부사장(미래성장부문장)은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체성분 개선과 대사 건강 회복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HM17321의 차별화된 과학적 기전과 개발 잠재력이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미약품은 환자들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차별화된 치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 신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임금근로일자리 2년만에 최대… 20대 일자리는 여전히 줄어

전년동기 대비 29만개 이상 늘어
보건·사회복지업 ↑ 건설·제조업 ↓

지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8개 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20대 연령층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지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만8000개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1.4%(29만2000개)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24년 1분기의 31만4000개 증가 이후로 최근 8개 분기 사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증가폭은 지난해 1분기 1만5000개를 저점으로 2분기 11만1000개, 3분기 13만

9000개, 4분기 22만1000개에 이어 올해 1분기 29만2000개까지 4분기 연속으로 확대됐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전년 동분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41만6000개로 74.0%를 차지했다.

퇴직이나 이직으로 근로자가 교체된 대체 일자리는 318만6000개(15.3%),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22만6000개(10.7%)였다.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193만4000개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2만7000개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사회 복지 서비스업에서 8만8000개, 보건업에서 4만개 증가했다.

숙박·음식업 일자리도 5만9000개 늘어

다. 또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5만6000개, 숙박업에서 3000개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3만7000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은 2만8000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일자리는 5만2000개 감소했다.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3만5000개, 종합건설업에서 1만7000개 줄었다. 다만 건설업 감소폭은 지난해 1분기 15만4000개에서 4분기 8만8000개, 올해 1분기 5만2000개로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 일자리도 1000개 줄었지만 지난해 4분기 1만4000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제조업 세부 업종 가운데 섬유제품 염색 일자리가 3000개 감소했고 기타 금속가공제품과 통신·방송장비에서 각각 2000개 줄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23만

3000개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30대도 11만5000개, 50대는 4만개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대 이하 일자리는 7만6000개 감소했고 40대도 1만9000개 줄었다.

다만 감소폭은 모두 축소됐다. 20대 이하 일자리 감소폭은 지난해 1분기 16만8000개에서 2분기 13만5000개, 3분기 12만7000개, 4분기 11만1000개를 거쳐 올해 1분기 7만6000개로 줄었다.

20대 이하의 경우, 제조업 일자리가 2만6000개 감소했고 공공행정과 정보통신에서도 각각 1만4000개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7만5000개, 여성 일자리가 21만7000개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구윤철 부총리, AIIB 신임 총재 면담… “韓 기업 협력, 힘써주시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쑤우 총재 “인프라 사업 등 협력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쑤우자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임 총재를 만나 ‘한국 기업과의 협력’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와 도출을 위한 은행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24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방한 중인 쑤우 AIIB 신임 총재와 면담했다. 양측은 한국 기업과 AIIB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AIIB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 명실상부한 글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쑤우자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로벌 다자개발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신임 총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금융 역량이 결합되면

각종 개발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은행 내 고위급에서 실무자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분야에 한국인 채용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쑤우 총재는 개발 경험과 기술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기술 기반 인프라사업 및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AIIB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5대 주주로서 적극 기여한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쑤우 총재 내한은 지난 1월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내 선진 공여국을 방문하는 일정 중 하나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 1면 “AI 인재 모셔라”…’서 계속

영남 등 산학협력 활발 이달말부터 본격 채용

한화그룹은 영남권 핵심 대학과 손잡고 AI·우주항공 분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계열사는 부산대·경상국립대·국립창원대와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학과 및 석사과정을 운영해, 선발된 우수 인재에게 학자금 지원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김동관 수석부회장이 밝힌 55조 규모 영남권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기업·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차세대 인재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롯데와 CJ 등 소비재·유통 기업도 AI·데이터 직무를 기존 사업의 디지털 전환과 연결해 채용하는 추세다.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 채용 일정도 8월 말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대기업 채용은 ‘공채냐 수시냐’를 넘어 실제 채용 인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신입의 경우 학력과 스펙보다 프로젝트와 문제 해결 능력 등 성장 가능성을, 경력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1면 ‘비트코인 일주일새…’서 계속

클래리티법 기대감 고조 장기적인 상승세 분석도

클래리티법은 이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자의 투자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올리는 천가상자산 법안으로 분류된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1년 넘게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클래리티법은 미 공화당이 입법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데, 미 민주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공화당은 민주당과 논의를 거쳐 8월 내에 클래리티법의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결국 무산됐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법의 조기 입법을 촉구하자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장기적인 상승세에 돌입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은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토큰화 및 디지털자산의 제도화가 미 단국채의 새로운 구조적 수요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BTC·ETH 관련 현물 ETF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할인 폭 축소가 이어지면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 추세에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카카오, 인적분할 승부수 던졌지만… 증권가는 목표가 줄하향

증권사 11곳 중 5곳 목표주가 하향
카카오X 투자회사 할인 부담 부각
카카오AI 수익성 입증 부담 여전
계열사 잇단 상장 전력에 불신 지속
분할 발표당일 시총 약 1.28조 증발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사업과 투자사업을 분리해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한 17조원대 기업가치를 되찾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증권가는 카카오X에는 투자회사 할인이 붙고 카카오AI의 성장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눈높이를 낮췄다. 주가가 1년 고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실적 대비 몸값도 여전히 낮지 않다.

24일 카카오는 전 거래일과 같은 3만 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도 과열종목 지정으로 이날 하루 공모도가 금지됐지만 주가는 소폭의 등락을 거듭한 끝에 보합으로 마감했다. 공모도 없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면서 분할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7조원 가치 찾겠다는데… 목표가는 줄하향

카카오는 지난 21일 카카오톡·AI·광고·커머스를 담당하는 신설법인 카카오AI와 금융·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 및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존속법인 카카오X로 인적분할한다고 발표했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카카오X 63.5%, 카카오AI 36.5%다. 내년 1월1일 분할한 뒤 같은 달 27일 각각 변경상장과 재상장을 추진한다.

카카오는 증권사들이 평가한 사업·자회사 합산가치가 34조2000억원인데 최근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은 16조8000억원에 그



정신아 카카오 대표(왼쪽)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겸 CA협의체 그룹투자전략실장, 카카오X 대표 내정자.

쳐 17조4000억원의 가치 격차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톡과 AI에 자원을 집중해 5000만명 규모의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는 자회사 관리 부담을 분리해 투자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의 첫 평가는 신중론에 가까웠다. 이날 카카오 보고서를 낸 증권사 11곳 가운데 키움·메리츠·다올투자·삼성·하나증권 등 5곳이 목표주가를 낮췄다. 키움증권은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36.4% 하향했고 메리츠증권은 5만2000원에서 3만7000원, 삼성증권은 4만9000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투자의견도 '매수'에서 '보유'로 낮췄다.

시장이 공통으로 지적한 문제는 카카오X에 적용될 투자회사 할인이다. 삼성증권은 카카오X에 30%의 할인율을 적용해 기업가치를 10조8000억원으로 평가했다. 할인율이 50%까지 높아지면 카카오 전체 적정주가가 3만3000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카카오AI도 아직 AI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카카오는 현재 약 2조8000억원

인 카카오AI 매출을 2030년 6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AI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그러나 하나증권은 AI 성장 성과가 2028년부터 숫자로 확인될 것으로 봤고, 키움증권은 AI 구독과 광고의 중장기 실적 전망을 낮췄다.

◆주식은 배정되지만… 사라지지 않은 불신

이번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대로 카카오AI와 카카오X 주식을 각각 배정한다. 신설회사 주식을 모회사가 보유하는 물적분할과 달리 기존 주주가 AI 사업의 성장가치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를 잇달아 상장한 전력으로 회사 분할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종목 토론방에서는 “인적분할이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분할의 장점이 뚜렷하지 않다”, “뒤통수 찌르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카카오를 아직도 모르냐” 등의 등 불신을 드러내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김범수 창업자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도 카카오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김 창업자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

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분할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카카오와 경영진에 대한 투자자 신뢰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카카오는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 없으며 분할 이후 양사가 독립적으로 경영된다고 밝혔다. 추가 지배구조 개편이나 합병도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신사업 육성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활용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제 경영과 주주환원으로 약속을 입증해야 한다. 발표 당일(21일) 카카오 주가는 7.49% 하락해 시가총액 약 1조2846억원이 감소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계 282만주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279만주를 순매수했다. 공모도 거래량은 231만주로 전날의 11배, 거래대금은 803억원으로 약 10배 급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카카오 둘로 나누자 노조 뭉친다 지배구조 개편 ‘공동교섭’ 승부수

인적분할 발표 닷새 만에 단체행동
고용안정·성과배분 공동 대응 요구
계열사별 교섭 한계 분사 책임 압박
네이버도 16개 법인 통합교섭 착수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사업과 투자·계열사 관리를 둘로 나누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자 노동조합은 반대로 계열사를 하나의 교섭 테이블로 묶는 ‘공동교섭’ 카드를 꺼냈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26일 오후 1시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 공동체 공동교섭 선포식'을 연다. 카카오뱅크 5일 연속과업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가 지난 21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인적분할을 발표한 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노조 단체행동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AI·광고·커머스를 담당하는 신설법인 카카오AI와, 주요 계열사 관리 및 미래 투자를 맡는 존속법인 카카오X로 회사를 나누기로 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각각 카카오AI와 카카오X 대표로 내정됐다.

노조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고용과 노동

조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향후 구조조정이나 계열사 매각·합병, 분사, 사업 이관 등이 발생할 경우 구성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노조는 “이번 분할 과정에서 대다수 구성원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분할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공동교섭 선포식에서는 책임경영과 고용안정, 공정한 성과배분을 비롯해 조직개편·매각·분사 시 사전협의, 공동체 내 전환배치, 공동체 차원의 고용·복지 안전망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가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카카오의 의사결정 구조와 현재 교섭 구조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임금과 고용 문제는 각 계열사에서 발생하지만 주요 투자와 사업재편, 인사 등은 공동체 차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만큼 개별 법인만을 상대로 한 교섭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metro

롯데캐슬에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당신의 눈부신 인생이 쌓인다는 것이기에
오늘도 롯데캐슬의 자부심과 품격은
어제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가치로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곳**

LOTTE CASTLE

5년간 100조 공급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첨단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자금 물길 흐른다

내일을 응원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성장 모델 구축에 나섰다.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해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하나금융은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공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③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첨단산업·혁신기업에 자금 공급

구체적으로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금융에 84조원, 포용금융에 16조원을 공급한다.

생산적금융 84조원 가운데 10조원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그룹 자체적으로도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한다. 그룹 자체 투자자금은 ▲모험자본 공급 2조원 ▲민간펀드 조성 기여 6조원 ▲첨단산업 투자 1조7000억원 ▲지역균형발전 투자 3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은 K-방산 펀드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펀드 등 첨단산업 성장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자금을 조성한다. 하나증권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하나벤처스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6조원 규모의 민간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대출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성장산업대출’과 ‘산업단지성장드림대출’ 등 특관상품을 신설하고, 기술력을 갖춘 유망 성장기업에 총 50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도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에는 14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자금 공급과 함께 환리스크 관리, 외국환 컨설팅 등 종합금융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담조직·KPI까지 손질

하나금융은 생산적금융 확대를 실제 영업 현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직·제도도 개편했다.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에 각각 ‘생산적금융지원팀’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하나은행 기업여신 심사부에는 첨단전략산업 신규 심사 전담 조직을 새롭게 마련했다.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지원 절차를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생산금융 84조, 포용금융 16조
첨단산업 성장·지역균형발전 지원
특관 상품 신설 등 대출 공급 확대
생산적금융지원팀 신설, KPI 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완화
금융취약계층에 5년간 4조 공급

생산적금융 전용 상품도 확대한다. ‘핵심성장산업대출’, ‘산업단지성장드림대출’ 등 특화 상품을 통해 첨단산업과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영업 현장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도 개편한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선정한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 신규 기업대출을 공급할 경우 실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생산적금융 관련 가점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금융전문역(RM)의 산업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산업구조 변화와 유망 산업을 주제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본부와 영업점 간 ‘원팀(One Team)’ 협업을 통해 기업 발굴부터 심사·자금 공급까지 연계한다. 이를 통해



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왼쪽)이 지난 23일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청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②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금융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계열사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③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전경.

공급된 자금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비용 낮춘다

포용금융에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원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12조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투입한다.

우선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기반으로 매년 약 1조25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 별도로 유동성 지원을 위한 1조 1000억원 규모의 특관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매년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를 선별하고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한다.

청년·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에는 5년간 약 4조원을 공급한다.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캐피탈·하나저축은행이 운영하는 자체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대면 채널에서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취약계층별 맞춤 지원도 확대한다. 성실상환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원금 자동상환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중·저신용 자영업자의 카드 발급과 생계형 중고화물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도 지원한다. 청년과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용 금융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포용금융 지원 범위도 한층 넓히고 있다. 하나금융은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과 새희망홀씨·햇살론 공급을 확대하고, 하나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기존 금융정보만으로는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던 차주에게 금리 우대와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하나금융그룹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대한민국 하키! 이제 나를 보여줄 시간

대한민국 하키 국가대표팀의 도전, 신한이 함께합니다

이승우 선수

김현홍 선수

박서연 선수

신한은 2021년부터 하키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며,
대한민국 하키의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장동혁의 ‘당협 물갈이’ 제동… 국민의힘, 직선제 결론 보류

이르면 27일 최고위서 재논의 전망
조강특위, 전체 당협 재선출 제안
현역 의원 반발에 지도부 고심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을 협의했으나 끝내 결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이르면 오는 27일 최고위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들에 대해 임기를 기존 관례대로 일괄 연장하는 대신, 당원 투표를 통해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금까지는 별도 투표 없이 기존 위원장이 계속 임기를 이어가고, 위원장이 없는 ‘사고 당협’에 한해서만 새 위원장을 뽑아왔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전체 당협을 ‘사고 당협’으로 간주해 당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당협위원장을 전면적으로 새로 선출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임이자 정책위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광한, 김민수 최고위원, 정점식 원내대표, 장 대표, 임 정책위의장, 양향자, 김재원 최고위원. /뉴시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는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며 “공개된 회의에서 보셨겠지만 일부 최고위원들과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꺼낸 의도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일부에서 그 진정성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해당 안건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이날 양향자 최고위원이 특정 계파를 겨냥한 교체로 비치치 않도록 관련 안건을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책임 당원 투표 50%와 지역 주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말하자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갖는 모양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적인 결론을 아직 확정 짓지 않은 것이지, 지금 대표께서 그리고 기존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고 있던 당협위원장 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으로 재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개혁이나 아니면 현행 제도를 좀 더 활용해보겠냐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 이후 더 활발한

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7조에는 당협위원장은 ▲전당원 선거 ▲책임 당원 선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현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 ▲기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 방식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협위원장의 전면 교체 가능성을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당협위원장을 전면 교체하면 수도권에서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영남권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다.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카드를 꺼내 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당에 본인의 사람들로 채워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며 “안정적으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gws0325@metroseoul.co.kr



metro

김·장 “자주 보자”… 대법원장 논란엔 이견

(김민석 민주당·장동혁 국회 대표)

여야 대표 첫 상견례 화기애애
대법원장 문제엔 날 선 신경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첫 회동을 마쳤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확실한 온도 차를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을 찾아 장 대표를 예방했다. 양당 대표는 지난 17일 김 대표가 선출된 후 처음 만났다. 장 대표가 김 대표에게 발언 순서를 양보하며 김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민석 대표는 “저는 장 대표를 좋아한다”며 “현재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리더”라며 장 대표를 치켜세웠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견해를 달리했지만,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는 함께 했던 교차의 영역이 있는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긴 리더다”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 대표의 역할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은 장 대표와 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이어 정례화, 상시화를 넘어 수시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김 대표는) 총리도 경험하셨기에 국정 운영 경험이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 경험을 되살려 국민의 삶과 어려운 민생, 경제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되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은 함께 감당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야당 대표와 대화의 다리를 놓아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뉴시스

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그런 만남이 이어지고 수시로 대화가 되는 그런 여야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보냈다.

장 대표는 “처음 뵙는 자리기 때문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만 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대법관 제정 논란 ▲미래대응기금 신설 ▲부동산 정책 등을 언급했다.

대법관 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간의 갈등 사례를 들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만은 지켜져야 하고, 우리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반이라는 신념에서 노 전 대통령은 대법관 제정을 수용하고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결단을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런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긴 한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시 것 같다”고 응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제가 절차적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지금 절차에

천착해 이런 논의를 계속하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며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의 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조과 세수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100조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과 세수의 50% 정도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청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서 여야가 논의하는 게 우선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주택 정책만큼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질서에 기반해서 정책을 펼치되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전제 위에서 정책을 펼치고 시장 질서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민주 ‘대통합추진단’ 출범… 범진보 연대

단장에 박범계 의원 임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 직속으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범민주진보진영 연대 및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각 정당 대표 예방 사실을 전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대표 직속 TF(태스크포스)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또 TF 산하에 진보연대분과(위원장 진성준),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위원장 이해식), 영입 확장분과(공동위원장 이소영·황명선)를 설치한다. 김 대표는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통합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TF 구성 이유에 대해 “진보·혁신당 등과의 연대가 필요한데, 진보개혁 진영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는) 창구 역할이 필요해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8·17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 방식 문제를 개선하는 ‘전당대회 평가 및 전당대회 제도 개선 TF’를 설치한다고 했다. 권역별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후에 합동연설회 당일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나 여론조사 등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평가 및 전대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낸 지시를 해 놓았다”며 “이중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고 있는 일부 유튜브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특별감찰관에 검찰 출신 최길수 변호사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제 부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으로 검찰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10년 가까이 공백 상태였던 특별감찰관제가 재가동되는 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최길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강지식 변호사(국민의힘 추천), 최용훈 변호사(대



한변호사협회 추천) 등 3명에 대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을 가결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더 크게 자라날 아이들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나가 아이들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눈높이 금융교육 지원

·어린이 경제 뮤지컬 공연 개최
·어린이 금융교실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 운영

보육환경 개선 및 돌봄 공백 최소화

·100호 어린이집 건립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운영

자연을 주제로 34년째 이어온 환경 미술대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수장 떠난 AIA생명… 대면채널 수익 안착 ‘흑자전환’ 과제

전체 신계약가치 전년과 비슷하지만 에이전시 채널은 두자릿 수 증가
방카슈랑스 부진 일부 보완한 셈
결손 해소+수익기반 확보 목표

황 네이슨 마이클 대표가 임기 도중 사임했지만 AIA생명의 대면채널 확대 전략은 이어질 전망이다. 외형 성장과 손실 축소 성과가 확인됐지만 영업적자와 누적결손이 남아 있어 차기 경영진에는 대면채널을 수익사업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24일 AIA그룹의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AIA생명의 자사 에이전시 채널(AIA프리미어파트너스) 신계약가치(VONB)는 설계사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다. VONB는 새 계약에서 장래 발생할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지표다.

법인세율 변경 영향을 제외한 AIA생명 전체 VONB는 전년 동기과 대체로 비슷했다. 다이렉트마케팅 채널은 전년 수



AIA생명 사옥.

/AIA생명

준을 유지했지만 방카슈랑스에서는 달러보험 판매가 감소했다. AIA프리미어파트너스의 성장이 방카슈랑스 부진을 일부 보완한 셈이다.

AIA프리미어파트너스는 황 대표 재임 중인 지난 2023년 9월 대면채널 확대를 목표로 출범했다. GA 통합공시를 보면 AIA프리미어파트너스가 모집한 AIA

생명 상품의 신계약 초기보험료는 2024년 317억원에서 지난해 617억원으로 94.7% 늘었다. AIA생명 상품 계약 건수는 1만8348건에서 1만7705건으로 3.5% 줄었지만, AIA프리미어파트너스 생명보험 초기보험료에서 AIA생명 상품이 차지한 비중은 90.6%에 달했다.

계약 건수보다 건당 초기보험료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설계사 생산성 향상이 신계약가치 성장을 뒷받침했다. MDRT(백만달러 원탁회의) 자격을 달성한 마스터플래너도 2024년 232명에서 지난해 302명으로 30.2% 늘었다. AIA생명은 2027년 4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A생명은 AIA프리미어파트너스에 2023~2024년 총 930억원을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연 4.6% 조건으로 운영자금 250억원을 대여했다. 출자·대여가 이어지는 동안 AIA프리미어파트너스의 영업수익은 2024년 579억원에서 지난해 1164억원으로 101.1% 증가했다.

손실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아직

흑자전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410억원에서 207억원으로 49.5% 축소됐고 순손실도 320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누적결손금은 591억원, 자본총계는 336억원이다. 외형 확대 이후 추가 지원 의존도를 낮추면서 수익 기반을 갖출 수 있는지가 다음 평가 기준인 셈이다.

황 대표는 지난해 7월, 3년 임기로 연임됐지만 약 13개월 만에 회사를 떠났다. AIA생명은 황 대표가 개인적인 사유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자진 사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혜숙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시 대표 역할을 맡고 있으며 AIA그룹은 차기 대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AIA프리미어파트너스의 확대 전략과 목표가 변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자회사GA는GA 대표가 경영전략을 짜고 이끌어가는 구조여서 AIA생명 대표의 사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이강석 대우건설 신임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19일 오전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대우건설

이강석 대우건설 신임 대표 아파트 건설현장서 안전관리 실태 점검

이강석 대우건설 신임 대표가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를 강조했다.

2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및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직원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을 나누었다.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하 3층~지상 29층 8개동, 117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 당시 초기 완판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단지로 올해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8년 1월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부터 안전관리 활동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대표는 현장 임직원들에게 “안전에는 과하다”는 기준이 없다”며 “변화하는 현장 여건과 근로자의 특성을 세심하게 살펴 현장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 성공 열쇠 ‘가족 동반 이주’

국토부, 기존 혁신도시에 이전 추진
전국 준공후 미분양 3만 가구 육박
기관이전, 주택 수요로 연결 위해
가족 함께 생활기반 이주 이뤄져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며 기관을 나눠 배치하기보다 앵커기업·연구기관 등과 집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춘천시는 이전 기관의 임대료와 건축비를 지원하고 임직원과 가족에게 이주정착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경남도와 충북 제천시 등도 사무실 임대료와 정착장려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내걸었다.



전남광주특별시장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통합을 한 전남광주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IS

이 같은 기대는 지방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6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한 달 사이 2225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물량은 4만8694가구다.

공사를 마치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786가구로 집계됐다. 지방 물량이 2만5091가구로 전체의 84.2%를 차지했다. 특히 충남 지역 미분양은 1년 전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정부는 앞서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을 마쳤다. 혁신도시의 인구와 주택·상업시설이

늘고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인근 원도심의 수요를 흡수하는 부작용도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모도시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는 9만2996명으로 혁신도시 인구의 51%에 달했다.

기관 이전이 주택 수요로 연결되려면 직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하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이전 대상 직원 4만

8128명 가운데 실제 이주자는 3만4214명으로 이주율은 71.1%였다. 가족 동반 이주율은 60.6%로 더 낮았다.

특히 금융기관 이전이 거론되면서 지역 주택과 상권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가족 동반 이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룸·오피스텔 등 임차 수요에 머물고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상권이 비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대상 선정부터 실제 이주까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정책이다. 당장 미분양 적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을 겪는 지방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기관 이전과 별도로 미분양 해소와 유동성 지원 등 지방 시장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면서 신규 사업장의 대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다른 시장 여건을 고려해 미분양 해소와 PF 유동성 지원 등 지방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입주 가뭄’ 오나… 내달 물량 1만184세대, 31% 급감

수도권 6936세대 전월비 24% 감소
지방 물량 3248세대, 올해 최저수준

다음달 전국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입주 가뭄이 본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졌다. 특히 지역별로는 한 두 개의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는데 그쳤다.

24일 직방에 따르면 오는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184세대로 집계됐다. 전월(1만4701세대) 대비 30.7%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8.2% 적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6936세대로 전월 대비 23.5% 줄었다.

서울은 3478세대가 입주한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4세대)가 물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밖에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센트럴아파트(215세대), 성북구 보문동 보문센트럴아파트(199세대)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디에이치방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지만 분양가격 기준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조합원 물량에 더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반포·송파 일대의 높은 주거 선호도로 입주 물량이 빠르게 소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대단지 입주가 최근 매물 부족이 이어진 강남권 전월세시장에 공급 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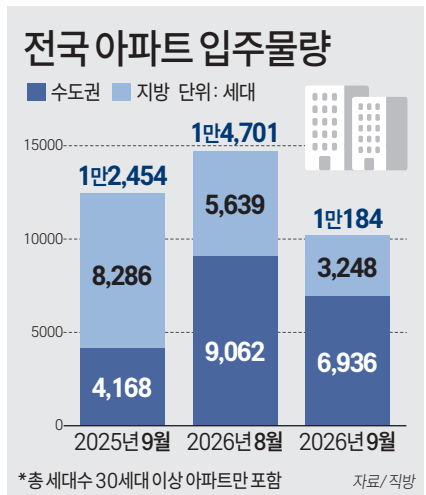
을 더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경기는 3332세대다.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역푸르지오센트릭이 1045세대로 가장 많고,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 815세대, 양주시 회정동 화전중앙역대광로제비앙 621세대 등이다.

지방의 입주 예정 물량은 3248세대에 그쳤다. 전월 대비 42.4%나 줄면서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방 입주물량은 8만8161세대로 작년(12만 8301세대)보다 30% 이상 감소한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창원센트럴아파트가 1509세대 규모로 가장 많은



며, 충남 아산시 신창면 아산신창1차광신프로그레스 450세대와 공주시 월송동 공주월송지구경남아너스빌 366세대,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아라타퍼스트543세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외화통장 가입계좌 10만좌 돌파

하나은행의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 해외여행을 위한 환전·결제뿐 아니라 남은 외화의 보관과 해외주식 투자까지 한번에 연결한 점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시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입 계좌수가 10만좌를 넘어섰다.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해외여행 서비스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여행 전 외화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현지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 전 과정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여행 전에는 통장에 보유한 외화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외화 하나머니’로 충전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행을 마친 뒤 남은 외화는 원화로 다시 환전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

삼성전자, 히트펌프보일러 리쇼어링… 연 10만대 이상 양산

정부 난방 전기화 정책 대응 나서
韓 주거환경 맞춤형 제품 개발·공급
LG전자 시장선점… 경쟁구도 선명

삼성전자가 정부의 난방 전기화 정책에 대응해 해외에서 생산하던 히트펌프 보일러를 국내로 옮겨 연 10만대 양산에 나선다. 국내 생산을 통해 한국 주거환경에 맞춘 제품 개발과 공급 대응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 시장을 먼저 공략해온 LG전자와 경쟁을 확대한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광주 사업장 제2캠퍼스에 2132㎡ 규모의 'EH S 히트펌프 보일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공정과 설비 안정성, 완제품 성능 등을 검증한 뒤 9월 말 본격 양산한다. 생산능력은 연간 10만대 이상이며 생산 물량은 전량 국내에 공급한다.

생산거점을 해외에서 국내로 옮긴 배경에는 정부의 난방 전기화 정책이 있다.



삼성전자가 정부의 난방 전기화 보급사업에 맞춰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국내에서 생산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면 한국 주거환경과 시장 수요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기 쉽고 공급에도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한다는 목

표다.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등 난방 전기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에서 열을 흡수해 전기로 이동시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삼성 EHS의 계절성능계수(SCOP)는 35도 출수 조건에서 4.9로 소비전

력 대비 5배에 가까운 열을 생산한다. 가스나 기름을 직접 태우는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어 난방 전기화의 핵심 설비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히트펌프 시장이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히트펌프협회(EHP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21개국의 히트펌프 판매량은 290만대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누적 설치량은 2930만대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LG전지도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해왔다.

국내에서는 제주가 초기 시장을 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생활속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통해 1042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태양광 설비를 갖추거나 설치할 예정인 단독·연립주택 등이 대상으로, 설치비의 70%를 가구당 최대 980만원까지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1418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 시장에서는 LG전자가 한발 앞섰다. LG전자는 2011년부터 국내 가정용 히

트펌프 시스템 보일러 사업을 해왔으며 올해 상반기 제주 보급사업에서 1위 사업자로 선정됐다. 올해 일체형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를 국내에 출시한 데 이어 제주와 평택의 HVAC 아카데미를 통해 설치·유지보수 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 4월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국내에 출시한 뒤 제주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 1418가구 규모의 2차 사업에도 참여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평·충주·남해 등에서는 실제 주거환경에서 난방·온수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검증하고 있다.

적용 범위가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물산과 제주 및 용인 주거연구소에서 난방과 난방, 온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EHS 올인원'을 실증하고 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엔솔, LFP 배터리 기반 수주 확대 나서

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내달 초 공고 예정… 사업비 1조 안팎
생산설비·해외실적 앞세워 반전 모색

LG에너지솔루션이 약 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제3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앞선 두 차례의 부진을 만회하고 수주 확대를 노린다. 북미 ESS 시장에서 축적한 양산·수주 실적과 총복 오창에 구축 중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 기반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이르면 9월 초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앞선 입찰과 비슷한 500메가와트(MW)대, 총 사업비는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선 두 차례 입찰에서 경쟁사보다 적은 물량을 확보했다. 1차 입찰에서는 전체 563MW 가운데 135

MW를 수주했으며 2차 입찰에서는 전체 565MW 중 79MW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1차에서는 삼성SDI, 2차에서는 SK온이 각각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했다.

배터리 3사가 모두 국내 ESS용 LFP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에 나서면서 제3차 입찰의 수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도한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입찰에서는 국내 생산과 공급망 구축, 화재 안전성 등을 반영하는 비가격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과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7년부터 ESS용 LFP 배터리를 1GWh 규모로 초기 생산하고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공동 기술 개발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북미에서 축적한 양산 경험과 수주 실적도 국내 입찰에서 경쟁력을 뒷받침할 요소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해 6월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북미 지역에 5개의 ESS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현지 생산능력을 50GWh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산 기반과 함께 수주 실적도 쌓였다. 지난해 말 기준 북미 ESS 수주잔고는 약 140GWh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포함해 3조원 이상의 ESS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전체 매출에서 ESS용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0% 미만에서 올해 상반기 20% 후반까지 상승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제3차 입찰이 국내 ESS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새로 구축하는 LFP 생산라인의 초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1차에서 삼성SDI, 2차에서 SK온이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간 만큼 LG에너지솔루션도 제3차 입찰에서는 국내 생산 기반과 해외 수주 실적을 앞세워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차, 연구개발 등 6개 부문 신입 채용

유튜브 설명회 등 지원자 점점 확대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 대규모 신입 채용에 나서며 자율주행·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인공지능(AI)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낸다.

최근 경력직 채용에서도 자율주행과 제조 AI, 로보틱스 등으로 인력 확보 범위를 넓히고 있어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전환에 대응한 인재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개발(R&D),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6개 부문에서 총 92개 공고를 내고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유지한다.

현대차는 신입 채용에 앞서 지원자와 점진도 확대한다. 9월 10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현직자와 소통하는 'Team Hyundai Career Lounge'를 열고 우수 참여

자에게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H-슈퍼패스'를 제공한다. 9월 2일에는 유튜브 라이브 채용 설명회도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8월 24일부터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의 소프트웨어 전환을 맡은 42dot의 인재 영입은 더욱 직접적이다. 올해 1월에는 엔드투엔드(E2E) 자율주행 기술 '아트리아AI' 고도화를 위해 3~20년 경력의 개발자 50여 명을 모집했다. 모집 분야도 ML 플랫폼, AI, 피지컬 AI, VLA, 보안 등 자율주행 기술 전반으로 확대됐다.

현재 42dot에서는 자율주행·AI·데이터·차량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VLM·VLA 기반 AI 엔지니어, 자율주행 데이터·ML 플랫폼 엔지니어, 자율주행 검증(V&V) 엔지니어뿐 아니라 자율주행 제품기획과 차량용 AI 에이전트 등으로 직무가 세분화됐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4 프로' EISA 어워드 최고 제품

인이어 헤드폰 부문… 음질 등 고평가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4 프로'가 글로벌 영상·음향 전문가들이 뽑은 최고 인이어 헤드폰에 선정되며 프리미엄 오디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버즈4 프로는 영상음향전문가협회(EISA)가 주관하는 'EISA 어워드 2026-2027'에서 인이어 헤드폰 부문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 갤럭시 버즈 제품군이 EISA 어워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ISA는 1982년 시작된 영상·음향 분야 평가단체로 25개국 이상의 전문 매체 관계자들이 제품의 성능과 혁신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갤럭시 버즈4 프로



갤럭시 버즈4 프로.

/삼성전자

의 음질과 통화 품질, 다양한 환경에서의 활용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출시한 버즈4 프로에서 강화한 오디오 하드웨어가 평가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제품 공개 당시 버즈4 프로를 갤럭시 버즈 시리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음질을 구현한 제품으로 내세웠다.

핵심은 스피커 구조 변화다. 버즈4 프로에는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와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를 각각 둔 2웨이 스피커가 적용됐다. 두 스피커에는 각각 별도의 앰프를 탑재해 음역별로 독립적으로 구동한다. 전작인 버즈3 프로와 비교하면 우퍼 진동판 크기도 19.8% 커졌다.

무선 전송 음질도 최대 24비트·96킬로헤르츠를 지원한다. 삼성 자체 코덱인 SSC를 이용해 호환되는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과 연결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블루투스 전송 과정에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남영 기자

한국엔컴퍼니그룹, 계열사 AX 속도낸다

중장기 사업 전략·AX 추진 방향 점검

한국엔컴퍼니그룹이 계열사 중장기 사업 전략과 인공지능 전환(AI)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20~21일 경기 판교 테크노플렉스에서 '계열사 혁신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엔컴퍼니ES사업본부와 모델솔루션, 한국네트웍스 등 6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상반기 경영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관세 갈등과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과 사업군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사업 발굴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계열사 간 사업·기술·인프라 협업 확

대 방안도 다뤘다.

인공지능 전환(AI)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그룹은 디지털 전환(DX)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검증해 그룹에 적합한 활용 모델을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조·물류 현장에는 피지컬 AI 적용을 확대한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AI의 학습·판단·자율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계열사별 현장에 AI 기반 표준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계열사 간 협업과 AI 활용을 확대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2035 소상공인 생존전략... 창업보다 '유지·성장'에 초점

소상공인정책학회 미래정책포럼

오프라인 쇠퇴·인구감소 위기 진단
스마트화·데이터 활용 인프라 주문
자영업자 기본사회보장 체계 제언
한계 소상공인 퇴출·재취업 지원
다 사례로 지역경제 연계전략 제시

‘203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오프라인 상권 쇠퇴로 운영이 쉽지 않은 등 큰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이 바뀐 환경에 적응·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노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 변화, 인구 감소, 경쟁력 심화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아 소상공인 스스로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같은 내용은 (사)소상공인정책학회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응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정책학회 미래정책포럼에서 (왼쪽 5번째부터) 오기용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방안’을 주제로 연 제1차 소상공인 미래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두번째로 주제발표를 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2023년을 위해 2026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심화를 고려해 창업보다는 유지·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퇴출 및 재취업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선 자금, 기업가 정신, 기술, 경영, 데이터 등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직업으로서의 지속성을 위해 ‘자영업자 기본사회보장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실장은 “디지털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엔 국가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 정부 주도 모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플랫폼으로서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해 디지털 전환 수준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수준이 높은 소상공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민간주도의 지원사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이 소비자 행동 및 생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선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대한 투명한 관리, 관련 데이터 개방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일본 간사이대 상학부 최상철 교수는 ‘장기불황기 일본 소매시장의 특징과 소상공인 전략과제’라는 내용을 통해 일본 소비자들의 지역애와 이에 근거한 일본 소매기업의 지역도착화 전략과 한국의 ‘서울일극집중화’ 및 ‘지역의 서울화’를 비교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소상공인은 경제적 약자에서 지역사회의 중심적 존재로 리포지셔닝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수단엔 한계가 있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보다 지역 문제 해결, 지역 경제 유지 전략 사례 수집·컨설팅 등 전략적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날 포럼 축사를 통해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매설 ROV 국산화 추진

팬스타로보틱스와 ROV 개발 협력
1만톤급 포설선 확보 2척 체제 구축
외산 장비·해외 인력 의존 축소 기대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포설선 확보에 이어 매설용 무인수중로봇(ROV)과 운용 기술 국산화에 나섰다. LS전선이 앞서 자체 매설장비와 운용인력을 확보해온 가운데 대한전선도 포설에서 매설까지 시공 역량을 넓히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지난 19일 팬스타로보틱스와 해상풍력·HVDC용 고성능 매설 ROV와 운용시스템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전선은 최근 1만톤급 포설선 ‘스칸디 컨베터’를 확보해 기존 ‘팔로스’와 2척 체제를 갖췄다.

해저케이블 시공에서는 케이블을 해저 상황과 조류에 맞춰 끌어내는 포설과 ROV 등을 활용해 케이블을 해저면 아래에 묻어 보호하는 매설 등이 이뤄진다. 고가



이준원 대한전선 전무(왼쪽)와 민정택 팬스타로보틱스 대표가 해저케이블 원격조종 수중로봇(ROV)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선

케이블의 손상을 막으려면 해저 환경에 맞춰 장비를 제어할 전문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대한전선에 따르면 현재 대형·고난도 HVDC 매설장비는 대부분 외산이며 운용도 해외 전문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임대 비용과 장비 수급 지연 부담 때문에 장비·기술 국산화가 프로젝트 수행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

으로 꼽힌다.

실제 외산 장비 조달 차질 사례도 있다. LS전선은 지난 2020년 12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약 2324억원 규모의 완도~제주 90km 구간 ‘제주 3연계 HVDC 건설사업’을 수주했지만, 당초 투입 예정이던 영국 업체 매설장비가 대만 프로젝트로 차출되면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LS마린솔루션은 보유 ROV의 출력을 1.5배 높인 ‘QT1500’으로 개조해 대체 투입하고 영국 SMD사와 핵심 부품 국산화도 진행했다. QT1500은 다목적 선박 ‘미래로’에 탑재돼 매설 작업을 수행했으며 제주 3연계 HVDC는 2024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LS마린솔루션은 전신 KT서브마린 시절부터 매설 기술을 축적했다. 1998년 국내 최초 포설선 ‘세계로’와 함께 해저케이블을 묻는 매설기(Plough)와 ROV를 도입하고, 2011년 다목적선 ‘미래로’를 확보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지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 채널 확대

랭글러 ‘골디락스 에디션’ 한정 판매
온라인 예약 후 공식 딜러 계약·인도

국내 수입차 시장의 판매 방식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완성차 브랜드 전략도 바뀌고 있다.

테슬라와 폴스타가 온라인 중심 판매를 정착시킨 데 이어 BMW코리아도 온라인숍을 통해 전용 모델과 한정판을 선보이고 있다. 이제 온라인 판매는 단순한 실험을 넘어 소비자와 만나는 새로운 접점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에 정통 오프로더의 상징인 지프도 합류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

는 지난 19일 지프 랭글러의 한정판 ‘골디락스 에디션’의 판매 채널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선택했다. 구매 방식은 간절하다. 소비자는 네이버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예약금을 결제한 뒤 희망 출고 날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후 계약과 차량 인도는 지프 공식 딜러가 맡는다. 가격과 구매 조건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프의 전략에서 주목할 부분은 온라인 판매 자체보다 ‘어디에서 파느냐’에 있다. 자체 온라인 플랫폼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대신 소비자가 이미 검색과 쇼핑을 위해 이용하는 네이버라는 생활형 플랫폼 안으로 들어갔다.

/양성운 기자 ysw@

벤처기업협회 인도 진출 벤처기업 모집

벤처기업협회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인도 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4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유망 벤처기업의 서남아시아 거점 진출과 현지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벤처협회는 전 세계 27개국 48개 지부에서 161명의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한인 벤처네트워크인 INKE 뉴델리 지부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일반 소비재 ▲화학제품 ▲산업기계 ▲자동차부품 등 인도 현지 시장 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전 산업 분야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기아, 차량용 앱 생태계 확대

차량용 앱 주제 첫 사내 해커톤 개최
임직원 100여명 참여 25개팀 경연

현대자동차·기아가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전환에 맞춰 차량용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임직원이 직접 차량용 앱을 개발하는 사내 해커톤을 처음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실제 서비스화를 검토하는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21일 판교테크원에서 차량용 앱 개발 경연 프로그램 ‘24H 코드 레이스’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Pleoss Connect)’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앱 생태계 ‘앱마켓’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에코프로비엠, 유럽 하이니켈 공급 확대

헝가리 공장 NCA·NCM 혼용 전환
내년 4분기 독일 완성차 공급

에코프로비엠이 ‘자동차 본고장’ 유럽의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하이니켈 양극소재 공급 확대에 나선다. 헝가리 공장을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니켈·코발트·망간(NCM) 혼용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와 연계해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은 내년 4분기부터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에 하이니켈 양극소재를 공급하기 위해 헝가리 공장의 기존 NCA 생산라인 개조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NCM 양극소재도 생산할 수 있는 NCA·NCM 혼용 라인으로 개조하기 위해 관련 설비 발주와 선적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약 4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기아가 차량용 앱을 주제로 해커톤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접수한 220여 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25개 팀을 선발했으며, 연구직뿐 아니라 일반직까지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4시간 동안 팀 단위로 안전,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게이미피케이션 등 차량과 일상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 시연 가능한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했다.

특히 사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바이프 코딩’을 통해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하고 고도화했다. 개발 속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AI 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양성운 기자

올해 상반기 상업 가동에 들어간 헝가리 공장은 3개 라인에서 연간 5만4000톤의 양극소재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전기차 약 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6월 1호 라인을 가동한 데 이어 오는 9월 2호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 생산 목표는 1만톤이며 내년에는 3만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영국 무역협정협정(TCA)과 유럽 완성차 업체의 역내산 조달 확대 요구가 이어지면서 헝가리 법인의 생산량은 중장기적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 공급할 제품은 니켈 함량이 90%를 넘는 하이니켈 양극소재다. 니켈이 양극소재 제조원가의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에코프로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조성 중인 BNSI 제련소를 통해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계속되는 ‘칩플레이션’… 통신3사, ‘조 단위’ AIDC 투자 부담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현상)

AIDC, 대규모 연산수요 확보 목표
연산능력 수행 핵심부품 ‘GPU’

엔비디아, 내년부터 GPU 가격 15%↑
통신사, 서비스 비용 등 인상 불가피

국내 이동통신3사가 미래 먹거리로 택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 사업의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칩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면서다. 향후 AIDC 서비스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대규모 투자 비용을 AI 인프라 구축에 쓰고 있다. 특히 AI DC는 부지 매입부터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조 단위 이상의 자본이 투입된다.

최근 실행 계획만 보더라도 SK텔레콤이 울산에 1GW 규모의 AIDC를 구축하



울산 AI 데이터센터 조감도.

/SK텔레콤

기 위해 들인 초기 비용만 7조원에 달한다. KT는 1GW급 AI DC 구축을 위해 2031년까지 5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고, LG유플러스는 파주 AI DC 확장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기업이 AIDC를 구축하는 궁극적인 목

적은 대규모 연산 수요를 확보해 수익화하는데 있다. 이 연산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이 GPU다. 전 세계 GPU 시장에서 약 80% 이상을 엔비디아가 공급한다.

문제는 엔비디아가 최근 주요 고객사에

베라루빈·블랙웰 등 차세대 GPU 모델 가격을 내년 출고분부터 약 15%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이들 모델을 우선 공급받기로 합의했으며 K

T는 블랙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 인상 원인으로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D램값 급등이 있다. GPU의 연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병목을 최소화하는 HBM이 반드시 붙는다. AIDC에 탑재되는 AI 가속기도 이들 조합으로 구성된다. 미국 IT 전문 매체 다인포메이션은 이번 가격 인상으로 1GW급 AIDC를 구축할 경우 비용이 지금보다 약 7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쇄적인 부품 가격 인상에도 통신 3사의 AI DC 투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AI DC 구축 단위가 커질수록 가격이 높은 고성능 GPU 탑재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내년 출고될 상위 모델 루빈 울트라 NVL576에는 GPU 576

개가 들어간다. 올해 출시한 베라루빈 NVL144 모델이 약 144개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4배나 차이나는다.

전력 소모와 발열 관리를 위한 냉각 시스템 구축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고성능 GPU 모델일수록 랙당 전력 밀도가 최소 150kW부터 최대 600kW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밀도가 높을수록 시설 투자(CAPEX)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결국 통신사가 투자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고객사의 임대료, 서비스 비용 등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AIDC 구축·운영 비용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동률을 높여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 고객 수요를 먼저 확보한 후 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투자 위험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KT, ‘AX 플랫폼 컴퍼니’ 전환 속도

‘넥스트 IT’ 3대 전략 수립
플랫폼 현대화, 인프라 구축
실제 업무과정에 AI 적용

KT가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컴퍼니’로 전환하기 위해 24일 ‘넥스트 IT’ 3대 전략을 수립하고, 넥스트 IT 플랫폼·인프라·웍스를 추진한다.

24일 KT에 따르면 이번 전략에는 고객 서비스 등 핵심 사업을 업무 프로세스 현대화를 통해 혁신하고,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IT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전사 AX 실행력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넥스트 IT 플랫폼’ 전략을 통해 핵심 업무 플랫폼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ERP, BSS, OSS 등 주요 시스템을 대상으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병행한다. 또 AI 기반 인증·결제 등 주요 고객의 서비스와 데이터 활용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KT닷컴과 마이케이티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는 다양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직원들에게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IT 환경을 개선한다.

정보 보호와 서비스 안전성에 초점을



KT 직원들이 AI 기반 업무 혁신 체계인 AID-X를 기반으로 IT 개발·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T

맞춘 ‘넥스트 IT 인프라’를 통해 차세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사내 클라우드 환경인 넥스트 IPC를 기반으로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인다.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체계를 통해 시스템과 서비스 특성에 맞춘 IT 자원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주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지원이 종료(EoS)되거나 임박한 시스템은 선제적으로 점검해 정보보안 위험을 줄이고 시스템 안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애 상황에서 주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IT 시스템 백업과 재해복구 체계도 강화한다.

넥스트 IT 워크스는 AI를 실제 업무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KT는 AID-

X를 중심으로 기획·설계·개발·테스트·운영 등 IT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AID-X란 AI 기반 AIDD를 기획부터 운영까지 IT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 체계다. 또 사내 AI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AX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임직원 업무 전반에 AI 에이전트 활용을 확대한다.

KT는 넥스트 IT 전략을 실행해 고객 서비스와 운영 혁신, 신규 AX 사업으로 연결하는 미래 비즈니스 기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IT 환경에서 클라우드 전환, 정보보호 체계, AI 기반 개발 운영 역량을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SKT-서울대, AI 공동 교육과정 개설

15주간 강의… 미래 AI 리더 육성
내달 1일 정재현 SKT CEO 특강

SK텔레콤은 서울대학교와 미래 AI 리더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강좌를 개설했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26년 2학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SKT-서울대 AI 공동과정’을 개설하고, 15주간 강의를 운영한다.

강의 구성은 ▲AI 앱·서비스 ▲AI 모델링 ▲AI 인프라 등이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의 핵심 AI 기술 연구 성과와 상호화 사례를 전파한다.

내달 1일 정재현 SK텔레콤 CEO이 ‘AI 시대의 선택과 기회’를 주제로 특강을 연다. 서울대 대학원생·학부생 약 300명에게 AI 기술이 산업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으며, SK텔레콤이 그리는 AI의 미래는 무엇인지 등을 설명한다.

또한 유경상 SKT AI 사내회사(CIC)장, 김태운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을 비롯한 SKT AI 개발 조직의 임원과 팀장, 박사급 구성원들이 함께 강연에 참여해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전한다.



오는 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정재현 SK텔레콤 CEO 특강 포스터. /SK텔레콤

현직자들과 업계 지식을 나누는 이번 강좌를 통해 우수 AI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0년간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내 우수 대학들과 강의를 운영하고 대학생 실전형 AI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 AI 인재 양성을 지속해왔다. /조민선 기자

LG U+·해커원, 글로벌 버그바운티 운영

모바일·인터넷 등 전 서비스 대상

LG유플러스는 24일 해커원과 글로벌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화이트해커 커뮤니티를 통해 국내 보안 검증 체계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잠재 취약점까지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AI 고도화로 공격 표면 등 보안 위협이 국내외 경계 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통신 서비스는 로밍·클라우드·AI 서비스 등 해외 인프라와 접점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보안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통신 기업 최초로 글로벌 버그바운티 플랫폼 기업 해커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운영 범위는 모바일·인터넷·기업서비스 등 LG유플러스 전 서비스 대상이다. 운영 방식은 신원 확인과 역량 검증 절차를 거친 숙련된 글로벌 화이트해커들이 비공개 참여하고, 글로벌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상시로 받아 위험 탐지와 함께 취약점을 신속하게 분석·개선한다.

버그바운티는 조직의 서비스와 IT 인프라에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화이트해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참가자가 취약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통해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조기에 발굴·보완할 수 있다.

해커원은 전 세계 240만여 명의 화이트해커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버그바운티 플랫폼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취약점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ISA와 국내 버그바운티 공동 운영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해커원과 글로벌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 국내 화이트해커 중심 무대를 전 세계 커뮤니티로 넓힘으로써 파악되지 않았던 취약점과 관리상의 맹점까지 찾아내는 것이 목표다.

/조민선 기자

‘위대한 삼촌: 로컬히어로의 탄생’

SK브로드밴드 ‘위대한삼촌: 로컬히어로의 탄생’ 시즌2를 첫 방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소멸과 청년 취업난에도 고군분투하는 지역 청년 CEO들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한다. 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농촌, 어촌, 산촌을 의미하는 삼촌(三村)을 프로그램명에 담았다.

내레이션을 개그맨 남희석과 아나운서 오영실이 맡아 청년들의 이야기에 따뜻한 공감과 활력을 더한다. 방송을 통해 소개하는 지역 청년 기업은 총 6팀이다. 경남 고성 타조랜드(김현희 대표), 경북 문경 리플레이스(도원우 김이린 부부), 경북 상

주 애니몽(안은진 대표) 등이다. 대한민국 판 주라기 공원을 꿈꾸며 타조를 사육하고, 20년간 방치된 고택을 연 매출 10억원의 핫플레이스로 재탄생시키는 등 사연을 소개한다.

이 밖에 제주 애월 그린비즈(손인준 대표), 경북 구미 휘록(김범석 대표), 제주 구좌 열일체인지(안주희 대표) 등도 있다. 이들은 각각 애월에서 단돈 200만 원으로 시작해 양봉과 체험장을 운영하고, 엘크 사슴 60마리를 사육하며 농음 신제품 개발에 나선다. 또 파지 채소를 그려놓아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방송은 내달 2일까지 B tv 케이블 채널 1번 등에서 볼 수 있다. /조민선 기자

삼전 110조 주주환원에도… ‘자사주 소각’ 빠지자 주가 급락

기존 최대 20.3조의 약 5배 규모
전 거래일 대비 8.70% 떨어져
자사주 매입·소각 방안 미포함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놔지만 주가는 거꾸로 갔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8.70% 하락한 25만7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우도 8.55% 급락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올 해만 약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시행하기로 의결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주 소각 절충안 나올까

삼성전자의 올해 주주 환원 규모는 최대 110조원이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20조3000억원의 5배쯤 된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그보다 높았다. 발표 전 150조원 안팎 관측까지 나왔다.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는 지난 3일 삼성전자가 스스로 약속한 잉여현금흐름(FCF)의 50%인 45조5000억원을 전액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입하라고 요구했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도 추진하고 있다.

주주 환원 목적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소각이 빠진 현금배당 위주의 정책에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주주환원 절대 액수는 역대급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메트로신문DB

수준으로 높아났지만,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절대적인 주주환원 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상당 부분 예상됐던 수준”이라며 “최근 투자자들의 기대치에는 소폭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소각은 전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현금배당은 주주들에게 15.4%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생긴다.

삼성전자가 배당에 무게를 실는 배경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있다. 금산법 24조는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

유하면서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51%, 1.49%로 합산 10.0%다.

김수현 DS투자증권은리서치센터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이 10%로 맞춰져 있어 보통주를 추가 소각할 경우 양사 지분율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한도인 10%를 초과하게 된다”고 짚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확정될 잔여 주주환원 약 70조원 중 상당 부분은 배당으로 집행될 전망이다”이며 “자사주 매입·소각 금액은 약 10조~20조원으로 추정한다”고 김 센터장은 말했다.

환원 규모가 기존과 변동 없었던 점도 실망을 키웠다. SK하이닉스는 19일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면서 2025~2027년 누적 FCF 기준 환원 규모를 기존 ‘50%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올렸다. 상한이던 50%를 하한으로 바꾼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2024~2026년 누적 FCF의 50%라는 기존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고, 기준을 높이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2027년 이후 주주환원 원칙도 제시되지 않았다.

증권가에선 보통주 대신 우선주를 소각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금산법 한도 산정 기준인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에서 빠진다. 우선주를 소각해도 금융 계열사 지분율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 센터장은 보통주 소각시 발생하는 금산법 관련 문제를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선 우선주 매입 소각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소각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는데 따라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지분율이 현재 9.99%에서 10%를 넘게 돼, 이런 한도 초과를 막으려 주식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추가 매입 없이 기 보유 자사주만 소각한다고 보면, (지분율

10%를 맞추기 위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익은 각각 1조4900억원, 26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정점 우려 시각도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체 주가가 급락했지만 현재 수요 폭증, 공급 부족이라는 반도체 업황 본질은 변한 게 없다고 봤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로 65만원을 내다본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년 공급 계약 비율이 높고 있고, 내년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JP모건은 “HBM과 범용 D램의 제품 믹스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전략과 선제적인 장기공급계약(LTA) 접근은 메모리 업사이클 지속성에 대한 확신을 높인다”며 “삼성전자의 LTA 커버리지 목표인 60~70%는 메모리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반면, 35만원을 내다본 키움증권은 “내년 D램 부문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6% 감소할 것”이라며 “실적 전망치와 시장 금리 조정을 반영해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손잡고 IPO 시동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주
나스닥 상장설엔 ‘아직 결정된 것 없다’
11월 19일 주총, 12월 31일 주식 교환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 입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두나무는 상장 국가를 특정하거나 미국 회계기준으로 전환을 완료한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4일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상장 국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나무가 미국 증시 상장을 목적으로 미국 회계기준(US GAAP)에 맞춘 재무제표 전환 작업을 마쳤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EY한영에 한국과 미국 회



(왼쪽부터)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등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두나무

계기준의 차이점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미국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전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회계기준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방안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스터디하고 문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은 포괄적 주식교환이 먼저

이뤄져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지금은 어느 국가로 정하거나 방향을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폭넓게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교환이 완료된 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주식교환 완료 후 1년 이내에 네이버파이낸셜의 IPO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두나무가 국내 상장보다는 해외 증시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상장할 것이라는 예상은 우세하다. 우선적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의 모회사인 네이버가 이미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어 국내 IPO를 진행할 경우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미국 상장설에 힘을 실는 요인으로 꼽힌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9월부터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두나무의 기업가치를 약 15조원,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가치를 약 5조원으로 평가하고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2.54주를 배정하는 교환 비율을 정했다.

관련 주주총회는 오는 11월 19일 열릴 예정이며, 주식교환일은 12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된다.

/신하은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전·닉스 퇴직연금 ETF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5일 ‘ACE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혼합50 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내 주식과 채권에 각각 50%씩 투자한다. 채권 비중이 50%인 혼합형 상품으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적금급 전액을 투자할 수 있다. 기초지수는 ‘KAP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혼합50 지수’다.

주식 부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3개 종목을 편입한다. 상장 시점의 예상 편입 비중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0%, 삼성전기가 10%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시기총액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AI 반도체’ 키워드와의 연관도가 높은 기업으로 선정한다. 지수 정기변경 결과에 따라 삼성전기를 대신해 다른 종목이 편입될 수 있다.

채권 부문은 잔존만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인 국고채와 1년 초과 2년 이하인 통화안정증권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기초지수의 듀레이션과 만기수익률(YTM)을 고려해 편입 종목을 결정한다.

분배금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다음 달 초 지급한다. 편입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과 채권 이자수의 등이 재원으로 활용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잘 버는데 주가는 뚝뚝… K·바이오, AI·금리 ‘발목’

올해 들어 주요 바이오주 하락
현금창출 능력 증명 ‘관건’

차세대 증시 동력으로 주목 받던 바이오가 힘빠진 모습이다. 표면적 방어쇠는 ‘AI 풀림’이지만, 그 밑에는 K바이오가 오래 안고 온 구조적 약점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셀트리온(6.66%)을 제외한 삼성바이오로직스(-8.60%), SK바이오팜(-32.99%), 한미약품(-7.87%) 등 바이오주 대부분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종목인 알테오젠(-28.97%), 오름테라퓨틱(-48.12%), 리가캄바이오(-42%)의 하락폭은 더 컸다.

영업 성적표가 나쁜 것은 아니다.

‘K·바이오’의 이익 성장 속도는 이미 미국과 글로벌 평균을 앞질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45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다. 같은 기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864억원으로 대비 23% 증가했으며, 알테오

젠 역시 342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증권가에서도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대신증권은 글로벌 헬스케어 대비 낙폭이 과도하다고 짚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과 대신증권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헬스케어 섹터의 2025~2028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은 27%로, 미국(18%)·글로벌(14%)을 웃돈다.

‘AI 자금 블랙홀’이 한 원인이다. 지목된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AI 설비투자가 자금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이익이 가

시화되는 종목으로 돈이 몰리면서,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는 성장주(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치솟은 글로벌 금리도 걸림돌이다. 신약 개발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전제되는 사업이라 바이오는 금리에 특히 민감하다.

무너진 시장 신뢰도 발목을 잡았다. 삼천당계약의 R&D 신뢰 논란이 투자심리를 흔든 뒤, 에이비엘바이오·알테오젠의 ‘기대 이하’ 뉴스가 잇따르며 도미노 매도로 번졌다.

시장에서는 K·바이오가 미국 바이오 시장과 같이 현금창출능력 ‘증명’ 여부가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

“韓-美 간 전략적 투자 이행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부상”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과거 한미 FTA 버금가는 협력 판
올바른 결과 낼 수 있도록 총력”

‘대체 불가 산업·기술’ 확장 제시
식량 등 필수자원 분야 전략 재편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한-미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양국 간 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선 한-미간 통상 리스크 관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WTO를 필두로, 개방, 효율, 비차별원칙이 지배했던 한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통상 질서가 자리잡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미국이 촉발한 관세 재편과 전략 산업 내재화 움직임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상수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도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투자 협의에서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박정성 산업통상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엔시날 지역에 총 198억달러(약 29조원)를 투입하는 6.4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대체 불가 산업 및 기술’의 공급망 확장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대체 불가 산업, 대체 불가 기술 확보가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면, 이를 세계 공급망에서 실현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통상 정책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대체 불가 산업의 힘으로 연간 수출이 7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를 향해 급성장하는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특히 “대체 불가 산업을 가진 나라는 선택받지만, 대체 가능한 산업만을 가진 나라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경제안보의 현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자원 분야 통상전략 재편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그간 통상질서 하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식량, 핵심광물 등 필수자원 분야에 대한 통상전략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으로 인한 피해 지원이라는 수세적 대응보다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상조회사 고위험 자산투자 깐깐해진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공정위,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
선수금 1000억 이상 땀 위원회 설치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해 고위험자산 투자 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의 경우 별도의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장래 장례나 여행

등을 위해 납입한 선수금이 고위험 투자 등으로 손실되지 않고 향후 계약 이행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에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기준을 신설했다.

우선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거래를 추진할 경우 사전 검토를 충분히 거치도록 권고했다.

내부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안정적인 선수금 운용을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선수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심의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 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에는 할부거래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및 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확립되면 소비자의 선수금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I 시대 산업현장 품질혁신 한자리에

28일까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산업 현장의 품질혁신 주역들이 모여 성과를 겨루는 ‘산업계의 전국체전’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가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된다.

1975년 시작해 올해로 52회를 맞이한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품질분임조가 현장 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경연을 펼치는 행사다. 올해는 ‘AI로 여는 대한민국 품질의 미래, 전북에서 한바탕 펼치다’를 주제로 열리며, 총 70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본선 무대에는 지난 5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314

개팀, 2500여 명이 참가한다. 경연은 현장개선,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AI, 탄소중립, ESG 등 총 18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경연 결과에 따라 금·은·동메달 순위가 결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5일 열리는 ‘제52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AI와 빅데이터, 디지털 제조기술이 산업의 생산방식과 품질관리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코트라, 콜롬비아서 ‘K-뷰티’ 판촉전

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흐름 탑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최근 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흐름에 발맞춰 콜롬비아를 거점으로 한 K-뷰티 진출 확대에 나섰다.

코트라는 지난 21일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현지 유력 K-뷰티 유통망인 ‘촉촉스킨(CHOK CHOK SKIN)’과 손잡고 ‘The K-Beauty Secret in Colombia 2026’ 판촉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남미 4위 경제대국인 콜롬비아는 주변국에 비해 K-뷰티 시장 형성이 다소 늦었으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對)콜롬비아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 급증한 78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무관세 혜택과 촘촘한 항공 물류망을 갖추고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의 신속한 운송과 인근 중남미 시장 확산에 유리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이번 행사에는 에이피알, 무신사, 코스맥스 등 국내 뷰티 선도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17개사가 참가했다. 현지에서는 그루포 엑시토(Grupo Exito), 올림피카(OLIMPICA) 등 메이저 유통망과 K-뷰티 전문 유통 관계자, 인플루언서 30여명



코트라는 콜롬비아 대표 K-뷰티 유통망인 ‘촉촉스킨(CHOK CHOK SKIN)’과 손잡고 지난 21일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K-뷰티 판촉전 ‘The K-Beauty Secret in Colombia 202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판촉전 현장의 모습. /코트라

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코트라는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콜롬비아 식약처(INVIMA)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행사 이후에는 온라인 후속 상담회를 통해 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마사회, ‘이용자 보호’ 중심 건전화 추진

‘제1차 건전화 이행 점검회의’ 열어

한국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 개정편람을 반영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건전화 추진체계 강화에 나선다.

마사회는 지난 20일 ‘2026년 제1차 건전화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건전화 성과를 점검하고, 사행산업 건전화영 모델을 선도하기 위한 향후 대응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실명구매 매출 비중 55.4% 달성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반기 차세대

모바일앱 ‘더비온 2.0’의 고도화 및 대면 등록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달부터 시범 운영 중인 ‘더비온 2.0’의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해 실명구매인 전자마권 전환율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법도박 근절 위해 AI 기반 불법경마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사이트 및 홍보물 차단 속도를 단축시킨다. 또 10월까지 3개월간 ‘불법경마 국민신고 포상금 한시 상향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민간 참여형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수산자원공단, 민·관 협력 ‘바다숲’ 조성

해수부·경남도·LG전자와 ‘맞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LG전자 등과 손잡고 ‘바다숲’ 조성을 추진한다. 수산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LG전자와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산자원과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중립 ▲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해조류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국제인증 노력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수부와 LG전자, 수산자원공단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13억원(국가와 민간이 5:5)을 투입해 경남 고성군 덕명리 해역에 바다숲 1.50㎢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해당 바다숲이 조성이 완료되면 주기적인 점검과 해조류 관리 등을 통해 바다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4곳 기관은 ▲해조류 등의 포자가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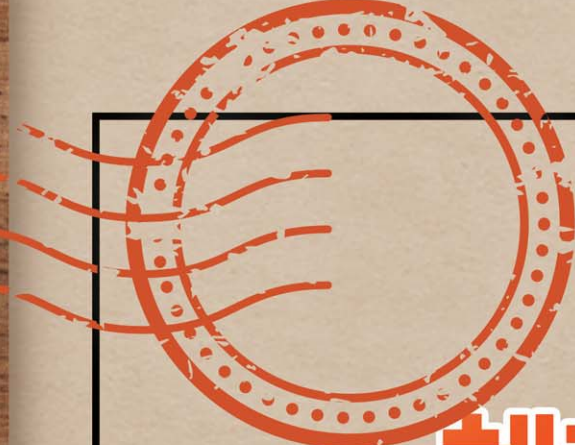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 협약 체결식. /한국수산자원공단

위에 불기 쉽도록 바위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갯EGI ▲해조류 이식 ▲해조류 포자 확산 시설 설치 ▲해조류를 먹는 성게 제거 등을 추진한다.

김종덕 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력은 바다숲 조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 공공이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좋은 사례”라며 “바다숲 조성에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종덕 이사장과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최성봉 LG전자 빌트인·쿠싱솔루션 사업부장,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혜화역 내부 (1번 출구) 숨어있는 '독고'를 찾아라

그를 찾는 순간, 첫 번째 미션이 시작된다.

숨겨진 단서를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비밀 미션을 완수하라.
미션 완료 후, **푸짐한 상품**을 수령하라.



2인 제주 왕복 항공+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배달의민족 4만원 쿠폰

미션 기간 | 9월 말까지

* 본 이벤트는 참여형 이벤트입니다. * 상품은 최종 미션 완료자에 한해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품(5만 원 초과)의 경우 관련 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문의 전화 | 02-332-4902



과자 봉지에 관광 명소 담아… 부산시 ‘이색 홍보’ 통했다

PR대상 2개 부문서 우수상 수상
‘햇별충전소’로 자살 예방 캠페인
기업 유통망·시민 생활공간 활용

부산시가 ‘2026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서 ‘자갈치 부기 패키지 협업’과 ‘햇별충전소’ 캠페인으로 나란히 우수상을 받았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상은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며 공공 부문의 소통 역량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홍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 대상 시상으로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았으며 이번 공모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집행된 캠페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상 결과는 지난 21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자갈치 부기 패키지 협업’은 부산시와 롯데쇼핑, 농심이 함께 부산의 대표 캐릭터 ‘부기’와 자갈치시장에서 이름을 딴 농심의 과자 ‘자갈치’를 결합한 민관



부산시가 ‘2026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서 ‘자갈치 부기 패키지 협업’과 ‘햇별충전소’ 캠페인으로 나란히 우수상을 받았다.

협업 캠페인이다.

지역 캐릭터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민간 기업의 상품·유통망을 활용하고, 제품을 통해 부산에 대한 관심을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기획했다.

농심이 외부 캐릭터와 처음 협업한 이 제품은 패키지 뒷면에 자갈치시장, 부산 콘서트홀, 도모현 등 부산 주요 관광지

를 담은 지도를 넣어 제품 자체를 홍보 매체로 활용했다.

전국 100여 개 롯데마트와 400여 개 롯데슈퍼 유통망은 물론 부산시티투어 버스 래핑, 남포역 조형물, 서울·부산 옥외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공공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서 우수상을 받은 ‘햇별충전소’는 자살 예방 메시지를 ‘햇별 쪼기와 산책’이라는 일상적 자기 돌봄 행동과 연결한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동선을 고려해 부산중앙공원, 부산시민공원, 온천천 등 3개 거점에서 15일간 이동형 팝업을 운영하며 마음 건강 자가 진단과 상담 안내를 진행했다. 캠페인 현장에는 2236명이 방문했고, 이 가운데 636명이 자가 진단에 참여해 190명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과 연계했다.

오미경 대변인은 “이번 수상은 정해진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유통망과 시민의 생활 공간 등 새로운 접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도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책과 시민을 더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 방식을 발굴해 부산시 공공 홍보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경북세일페스타, 최대 30% 할인

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경북세일페스타’를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500여 개사가 참여한다. 소비자는 네이버, 우체국쇼핑, 롯데온, 지마켓, 오아시스마켓, 현대이시윌, 공영쇼핑 등 7개 온라인 쇼핑몰의 ‘경북세일페스타’ 전용관에서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온라인 기획전 예산을 지난해 7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김해시

2026년 추경 2조 8381억 편성

김해시가 2조 838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본예산 2조 4816억원보다 3565억원(14.4%) 늘어난 규모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3469억원(16.7%) 증가한 2조 4205억원, 특별회계는 96억원(2.4%) 증가한 4176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원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증가분, 세출 예산 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등으로 마련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울산역·태화강역 운행 확대

울산시는 한국철도공사의 전국 열차 시각표 전면 개정과 고속철(KTX·SRT) 통합 운영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울산역과 태화강역 운행이 확대되고, 울산역의 KTX 이용 요금이 인하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역(KTX)의 경우, 기존 서울행 노선에 하루 5~6회의 열차가 추가로 편성돼 시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행 일반실 운임도 기존 5만35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5500원(약 10%), 특실 운임은 7만4900원에서 6만9600원으로 5300원 각각 인하된다.

태화강역의 청량리행 KTX-이음 노선도 운행이 확대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부산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독서의 달’ 프로그램 풍성

부산시교육청 소속 10개 공공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공연, 강연, 체험, 전시, 토론 등 463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도서관은 ‘9월 도서관이 좋아서’를 한 달간 운영한다. 중앙도서관은 신규 가입 대출자에게 기념품을 주고 연체자의 대출 정지를 풀어주는 ‘도서관에서 만나요’를 진행한다.

구포도서관은 생태학자 최재천 작가를 초청해 북 콘서트를 연다. 해운대도서관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캐리커처 행사 ‘우리 가족 이야기’를 마련했다. 사하도서관은 독서 토론과 도서관 탐방을 결합한 ‘기술도서관 북스테이’를 선보인다.

/부산=이도식 기자



안동하회마을보존회 류열하 이사장(왼쪽 네 번째)과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21일 안동 하회마을을 략고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안동 지역 잇는 관광벨트 구축

경북문화관광공사·하회마을을 협약 입장료 연계 할인도 추진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안동하회마을보존회가 경주와 안동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안동 하회마을 략고재에서 ‘상호협력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북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 홍보·관광마케팅,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지역관광 활성화 등에 적극 힘을 모으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간 상생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경주와 조선 유교문화의 맥을 이은 안동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안동시와 협의를 거쳐 경주엑스포대공원과 하회마을을 함께 방문할 경우 입장료를 할인하는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경주와 안동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연결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체류 시간과 관광 소비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이 열린 략고재는 지난 5월 한일 양국 정상 이 만나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나눈 곳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영양 고추 페스티벌, 막바지 점검 분주

서울광장서 27일 개막

영양군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6 영양고추 H.O.T Festival을 앞두고 수도권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행사 전 홍보부터 판매 농특산물 검수와 현장 안전 확인까지 세부 운영 사항을 다시 살피며 축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27일 개막을 앞둔 영양군은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영양고추의 품질과 축제 정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사전 인지도를 높여 행사장 방문으로 연결하고 영양고추의 경쟁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알린다는 구상이다.

판매 품목 관리도 강화한다. 참여 농가와 업체가 준비한 영양고추와 고춧가루 등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상품 상태와 포장 수준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기와 위생

관리 여부도 살핀다. 소비자 응대 등 각 판매부스의 운영 여건까지 점검해 현장에서 형성되는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행사장 조성 역시 개막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서울광장에는 농특산물 판매 부스와 음식디미방·문화관광 홍보관이 들어서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영양군은 시설물 설치와 방문객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안전 관련 사항을 최종적으로 살펴 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영양고추 H.O.T Festival은 생산자가 수도권으로 직접 찾아가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영양군의 통합마케팅 행사다. 영양의 음식과 문화 및 관광 자원을 함께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지역 농특산물 판촉을 넘어 수도권 홍보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 1호선 구형 전동차 40년 운행 마침표

신형 전동차로 전 편성 전환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26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형 전동차의 마지막 운행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1985년 개통한 1호선의 마지막 구형 편성인 제45편성 운행을 끝으로, 40년 만에 전 편성이 신형 전동차로 전환된다.

제45편성은 1997년 6월 25일 첫 운행을 시작해 약 300만km를 달렸다. 26일 오전 9시 18분 다대포해수욕장역을 출발해 오전 10시 36분 노포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영업 운행을 마친다. 이날 운행에는 이병진 사장이 기관사 운전실에 동승해 육성 방송으로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사전 신청 시민들은 부산대역에서 제45편성을 촬영한 뒤 열차에 탑승해 노포 차량기지로 이동, 1호선 제1편성 문화



1호선 제45편성.

/부산교통공사

유산 전동차 역사전시관’을 관람한다. 1985년 도입된 제1편성은 국내 최초로 스테인리스 차체와 자동 열차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부산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신청은 공사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구형 전동차 교체 사업은 다대포해수욕장 연장선 차량을 제외하고 총사업비 4330억원을 투입해 4단계로 추진됐다. ▲1단계 40칸 ▲2단계 48칸 ▲3단계 200칸 ▲4단계 72칸까지 마무리되며 약 10년 만에 완료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산청군, 국민이 뽑은 관광명소 37건 선정

‘동의약선관’, 비건 한식 주제 1위

산청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X100 프로젝트’에서 관광자원 37건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공사가 여행 전문가 100인이 뽑은 100개 주제를 놓고 국민 투표로 대표 명소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4만145명이 참여해 9883곳이 최종 뽑혔다.

산청군은 미식, 자연·생태, 여행 취

향, 라이프스타일, 체험·레저스포츠, 문화·예술·전통 등 분야에서 37건이 선정됐다.

동의약선관이 ‘비건 한식’ 주제 1위에 올랐고, 산청맥주는 ‘지금 마시러 갑니다, 술부심 뽀뽀’ 2위, 동의보감촌과 정취암은 각각 ‘K-뷰티 성지’와 ‘기도 여행’ 주제 3위를 차지했다.

남사예담촌·황매산 미라네파크 오토캠핑장·대원사계곡·지리산중산리코스는 각각 4위, 경호강과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사 자동차야영장은 각각 5위에 올랐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추석 앞두고 먹거리값 줄줄이 인상... 장바구니 물가 ‘비상’

라면·빵·가공식품 가격 잇단 인상
김밥 등 외식물가까지 상승세 확산
식품사 원가·환율 부담 인상 근거
해외 호조에 주요 업체 실적 개선
소비자단체 “선제적 비용 전가”

추석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식품·외식 업체가 잇달아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가공식품부터 분식 등 외식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는 ‘도미노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업체에 따르면 농심, 오뚜기, 팔도 등 주요 라면·식품업체들은 이달부터 주요 제품 출고가를 연이어 올린다. 농심이 용기면과 스낵 등 43종 가격을 평균 5.8% 올린 데 이어 오뚜기는 내달 7일부터 컵라면과 만두 가격을 최대 7.7% 인상한다. 팔도 역시 내달 1일부터 용기면과 음료 출고가를 평균 5% 이상 올리기로 했다.

베이커리와 가공식품 전반으로도 인상 여파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파리바게뜨는 127개 품목 가격을 평균 5% 인상하며, 푸레쥬르(8.2%), CJ제일제당(8%), 사조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참치캔 10%·수산캔 20%) 등 주요 업체 대다수가 일제히 가격을 조정을 마무리했거나 앞두고 있다.

이같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외식 물가까지 직접 흔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38원으로 전년 대비 5.9% 상승해 주요 외식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쌀, 계란, 김 등 핵심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라면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더해지면서 분식집 라면 한 그릇은 이미 5000원 대가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두고 업체와 소비자단체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식품기업들은 원당·원맥·팜유 등 원자재 및 포장재 가격 상승, 환율 급등에 따른 제반 비용 증가를 불가피한 인상 사유로 내세웠다. 연초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가격을 낮췄던 주요 품목의 가

격을 원상 복구하는 ‘스프링 효과’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농심·CJ제일제당·오뚜기·팔도 등은 4~5개월 전에 라면·과자·밀가루·식용유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와 시장의 시선은 냉담하다. 주요 식품 기업들은 원가를 하락과 영업이익 증가 등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84%까지 확대되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6.7% 급증한 1762억 원을 기록했고, 농심 역시 미국·중국 등 해외 법인 호조로 2분기 영업이익이 47.6% 오른 593억 원을 올렸다. 오뚜기 역시 해외 매출이 15% 이상 늘며 호실적을 이어갔다. 상반기 K-라면 수출액만 역대 최대인 9억 3539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셈이다.

해외 실적 호조와 별개로 원자재 가격 흐름도 기업들의 주장과 대비된다.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가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국내 소맥분(밀가루)과 설탕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6%에서 최대 14.1%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협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기업들의 실적도 양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상되는 원가 상승분을 선제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 수익성을 챙기려는 기습 인상으로 의심된다”며 과점 구조를 활용한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폭탄에 정부는 주요 식품기업과 함께 할인 행사를 추진 중이나, 서민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푸드 인기로 전체 실적은 선방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국내 절대 식품 소비는 줄어 들고 있어 내수 시장만으로는 견디기 힘든 구조”라며 “환율 불안과 해외 현지 관세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래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영상 조치”라고 해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현대홈쇼핑, ‘코아시스’ 상품 확대

코스맥스와 단독 화장품 공동개발
고기능성 기초 2종 매장서 첫선
연내 전용상품 40종서 60종 확대

현대홈쇼핑은 코스맥스와 단독 상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홈쇼핑 자체 오프라인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Coasis)’ 단독상품 공동 개발 및 라인업 확대를 위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현대홈쇼핑은 코아시스 매장 운영을 통해 축적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제품 기획, 패키징 디자인, 유통, 마케팅 등을 전담하며, 코스맥스는 원료 선정과 제형 개발 등 제품화와 생산을 맡는다.

양사는 주름, 기미 등 피부 고민에 맞춤형 고기능성 기초 화장품 2종을 ‘온리 코아시스(Only Coasis)’로 선보인 뒤, 상품군을 넓혀갈 계획이다. 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점과 현대백화점 천호점, 현대아울렛 가든파이버점·동대문점 등 코아시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현대홈쇼핑 본사에서 진행된 현대홈쇼핑과 코스맥스 단독 상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현대홈쇼핑 한광영 대표(사진 왼쪽)와 코스맥스비티아이 이병주 대표(사진 오른쪽)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스 4개점에서 단독 판매하고, 향후 현대홈쇼핑 TV라이브와 모바일 라이브커머스로도 판로를 넓힐 예정이다.

현대홈쇼핑은 코스맥스 외에도 다양한 협력사와 협업을 확대해 현재 40여 종인 온리 코아시스 상품을 연내 6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온, 계절 아우른 ‘키즈런’ 연다

여름 시즌오프·가을 신상품 구성
레고·MLB키즈 등 인기 브랜드 참여

롯데온은 오는 30일까지 유아동 상품 행사 ‘키즈런’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름 시즌오프 상품부터 가을 신상품, 겨울 역시 시즌 상품까지 계절별 유아동 의류와 용품을 한데 모았다.

육아용품 부문에서는 부가부의 버터플라이2, 폭스5리뉴, 동키6모노, 지라프 하이체어 등을 선보인다. 레고는 프렌즈, 보태니컬, 무비 시리즈와 테크닉 등 주요 상품을 판매한다.

아동복은 여름 시즌오프 상품과 가을 신상품, 겨울 역시 시즌 상품 등으로 구성했

다. 레노마키즈와 페리미츠는 가을 상품을 사전 공개한다. 이지핏 네이비스트라이프 니트와 하프비스티에 티셔츠, 박카라 주름 원피스, 라운드카라 플레어코트 등 환절기용 상품을 선보인다.

베베주는 상하복과 플리즈, 데일리 하프 팬츠 등을 롯데온 단독 행사 상품으로 판매한다.

MLB키즈는 아웃도어 패딩 아노락과 베이직 아웃도어 덕다운 등 겨울 역시 시즌 상품을 선보이고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 빈폴키즈는 클래식 산돌 오버핏 셔츠 등 가을 신상품과 패딩 점퍼 등을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NS홈쇼핑·홈플러스, 거창 농산물 판로 확대

덕유산권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NS홈쇼핑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거창군은 덕유산권역 우수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전국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거창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NS홈쇼핑과 조항목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표이사, 이흥기 거창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덕유산권역을 비롯한 거창군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 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지자체와 유통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NS홈쇼핑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거창군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와 안정적인 거래관계 구축에 협력한다. 거창군은 생산자 조직 육성과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상품 기준에 맞는 납품 체계를 구축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과



NS홈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거창군이 지난 21일 거창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른쪽 NS홈쇼핑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조항목 대표이사, 왼쪽 이흥기 거창군수.

/NS홈쇼핑

판촉을 지원한다.

세 기관은 거창군 농특산물의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신규 상품 발굴과 유통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골든블루, 솟폼으로 젊은 소비자 점점 확대

‘새파란 녀석들’ 3기 30명 활동 종료
3기 누적 인게이지먼트 1200만회 돌파

골든블루가 솟폼 콘텐츠를 활용한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에 나선 가운데 ‘새파란 녀석들’ 3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골든블루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솟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새파란 녀석들’ 3기 수료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새파란 녀석들’은 주류 문화를 젊은 소비자들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디지털 소통 프로젝트다.

3기에는 캠핑, 흡술, 흡파티, 하이볼 등 최근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키워드로 30명의 크리에이터를 선발했다. 참가자들은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편집까지 직접 진행하며 솟폼 영상을 제작했다.

3기 활동 기간 누적 인게이지먼트는 1200만 회를 넘어섰다. 1·2기 성과까지 합산한 누적 인게이지먼트는 3900만 회를 기록했다.

수료식에서는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크리에이터를 선정하고 총 500만원 규모의 상금과 리워드를 지급했다. 골든블루는 조화수와 맛글 참여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해 활동 성과를 평가했다.

골든블루는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참가자들과 교류를 이어가며 콘텐츠 제작 교육과 브랜드 협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백다방

사과젤리 스무디 선택

복숭아·리치·청포도 3종

더본코리아의 커피 브랜드 백다방이 저당 사과워터젤리를 넣은 시즌 한정 음료 ‘사과젤리 과일스무디’ 3종을 출시한다. 신메뉴는 과일스무디에 저당 사과워터젤리를 넣은 제품이다. ▲사과젤리 복숭아 스무디 ▲사과젤리 리치스무디 ▲사과젤리 청포도스무디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사과젤리 복숭아스무디는 복숭아의 단맛과 향을, 사과젤리 리치스무디는 리치의 은은한 향과 단맛을 담았다. 사과젤리 청포도스무디는 청포도의 상큼한 맛을 살렸다. 세 제품 모두 스무디에 저당 사과워터젤리를 넣어 젤리 식감을 더했다. 신메뉴는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백다방과 백다방 빵연구소에서 판매한다. 시즌 한정 메뉴로 운영된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테라 스파클링’ 흥행

20일 만에 150만캔 완판

하이트진로가 지난 4일 출시한 과실탄산주 ‘테라 스파클링’의 초도 생산 물량 150만 캔을 출시 20일 만에 모두 출고했다. 회사는 추가 생산에 들어가 제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테라 스파클링’은 스페인산 화이트와인을 베이스로 과즙과 탄산을 더한 RTD 제품이다. 토마토(4.6도), 레몬(7도), 수박(4.6도) 등 3종으로 출시됐다. 출시 이후 SNS를 중심으로 제품 관련 콘텐츠가 확산됐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관련 콘텐츠는 430건 이상, 노출량은 1500만 건을 넘어섰다. 편의점 재고 확인 앱에서는 제품 검색량이 1위를 기록했으며,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8월 1~2주 누계 기준 다른 국산 RTD 제품보다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신원선 기자

처서 지나자 ‘가을옷’ 검색 폭발… 패션업계 F/W 선점전

F/W 시즌, 패션업계 실적 좌우
올가을 키워드 ‘레이어드·미니멀’
신상 기획전·시즌 할인전 배치

절기 처서가 지나 가을 기운이 완연해 지는 가운데, 패션업계가 본격적인 F/W 시즌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2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간절기 아우터와 신상품을 전면배치하며 가을 시즌 공략에 나서고 있다. 플랫폼·유통사도 얼리버드 할인, 가을 기획전 등으로 수요를 선점하는 모습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발표한 ‘패션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6~8월) 11조3700억원 수준이던 패션 소비 규모는 가을(9~11월)이 되자 24조52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처서 직후인 9월 소비액은 7조1900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8월(3조32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116.6%) 높았다. 가을로 넘어가며 아우터 중심으로 객단가(1인당 구매 금액)가 커지기 때문이다. 고단가 상품이 몰린 F/W(가을·겨울) 시즌이 실적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만큼, 업계 역시 가을 소비자 맞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니 2026 가을·겨울 컬렉션 화보(왼쪽)과 올리비아로렌 2026 가을 캠페인 화보 이미지.

/삼성물산·올리비아로렌

◆레이어드부터 미니멀까지

덴마크 패션 브랜드 가니(GANNI)는 무게감 있는 외투와 소재감을 살린 레이어드 코디를 선보였다. 브라운·베이지 등 가을의 자연을 연상케 하는 색상에 다양한 패턴과 소재를 더했다. 가을상품 라인업으로 코트, 카디건, 니트, 스커트, 원피스 등으로 트렌디한 가을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로렌(OVL R)’의 가을 스타일링 주제는 ‘미니멀’이

다. 딥브라운·브릭·아이보리 등 차분한 색감으로 가을 분위기를 표현했다. 스웨이드 재킷, 트위드 재킷, 블레이저, 블루종 등 간절기 상품들을 배치하고 바지류도 다양하게 구성했다. 소프트 배럴 팬츠, 클래식 스트레이트 핏 데님, 커브드 진, 와이드 팬츠 등 체형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아외 활동 겨냥한 간절기 아우터

아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9월부터 아웃

도어 의류 소비가 살아난다. 패션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여름(6~8월) 평균 5.6%에 머물렀던 아웃도어류 소비 비중은 가을 시즌(9~11월) 평균 10.3%로 증가했다.

최근 완벽하게 갖춰 입기보다 겹옷을 무심하게 걸치는 슬랙커 코어가 주목받는 가운데, 기능성 아우터로만 여겨졌던 바람막이가 일상 스타일링의 핵심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외 행사나 스포츠 직관, 캠핑장 등에서 가볍게 입기 좋고 간절기부터 초겨울까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LF가 전개하는 스포츠 브랜드 ‘리복(Reebok)’은 지난 21일 ‘26FW 윈드브레이커 컬렉션’을 공개하며 아웃도어 수요 공략에 나섰다. ‘DNA 아노락 재킷’과 ‘DNA 바람막이 재킷’을 비롯해 트랙 재킷, 우븐 카고 팬츠 등 스포츠 아가이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품들을 선보였다. 운동과 일상의 경계를 허문 간절기 아우터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레이어링으로 완성한 가을 주얼리

잡화·주얼리 시장도 가을 체제로 전환 중이다. 주얼리 브랜드 ‘디디에 두보(DIDIER DUBOT)’는 ‘2026 FW 센슈얼 컬렉션’을 공개하며 레이어링 기반의 가을 주얼리를 제안했다. 정교한 스톤 세팅·마감

기술로 가장 긴 가을·겨울 옷에도 걸리지 않게 했다. 아울러 레이어링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팔찌 등 포인트 주얼리 연출법도 소개했다.

◆유통가도 가을 특수 선점전

소비자들의 가을 패션 관심도가 늘어 플랫폼 차원의 마케팅도 화력을 지피고 있다. W컨셉에 따르면, 입주 직후인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가을 패션’ 관련 검색량이 직전 5일 대비 360% 폭증했다. W컨셉은 스웨이드 레더 등 가을 인기 아우터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오는 29일까지 ‘시즌 프리뷰’ 기획전을 열고 가을 수요 흡수에 나선다.

지그재그도 지난 8일부터 ‘가을’ 키워드 검색량이 크게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렌치코트’ 검색량은 전일 대비 465% 폭증했고 ‘가죽재킷’(96%)과 ‘재킷’(35%) 등도 일제히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지그재그는 이러한 수요 변화에 발맞춰 다음 달 6일까지 여름 시즌 오프 상품을 정리하고 가을 신상을 한데 모은 ‘가을 신상 그랜드 페스타’를 전개한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키트루다’ 국내 허가 절차 돌입

식약처에 CT-P51 품목허가 신청
키트루다와 약동학적 동등성 입증

셀트리온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CT-P51(성분명: 펠브롤리주맵)’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오리지널 의약품 키트루다의 주요 적응증인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위암, 두경부암 등을 대상으로 한다.

셀트리온은 앞서 CT-P51 임상 1상을 통해 완전 절제술을 받은 흑색종 환자 228명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키트루다와 CT-P51 간 약동학적(PK) 동등성을 입증

했다. 두 의약품의 체내 약물 노출 정도를 비교한 결과, 사전에 설정한 동등성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안전성과 면역원성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향후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CT-P51 품목허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CT-P51을 시작으로 항암 파이프라인 기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차세대 항암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CT-P51 후속 연구개발의 경우, 기존 전이성 직결장암·비소세포폐암·상피성 난소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

맵)’, 셀트리온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등과 병용하는 요법 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인 키트루다가 보유하고 있는 약 44조원 규모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CT-P51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퍼스트 그룹으로 진입하고 안정적인 자체 생산, 탄탄한 직판망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 및 신제품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C녹십자 ‘헌터라제’, 인도·대만 진출

아시아 희귀질환 시장 공략 속도

GC녹십자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다.

GC녹십자는 ‘헌터라제 IV’가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O)와 대만 식품의약품(TFDA)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뇌실 내 직접 투여 제형인 ‘헌터라제 ICV’ 역시 대만 식품의약품(TFDA)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GC녹십자에 따르면, 인도는 기존 치료제를 투여 받는 환자 비율이 낮아 미충족 의료 수요와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IV와 ICV 두 제형 모두 허가를 획득한 대만은 헌터증후군 조기 선별 및 환자

지원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 시장 접근성이 뛰어난 국가로 꼽힌다.

현재 헌터라제 IV는 전 세계 총 14개 국가, 헌터라제 ICV는 총 4개 국가로 진출하게 됐다. GC녹십자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 이어 인도와 대만까지 아시아 주요 시장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만큼 향후 글로벌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GC녹십자 이재우 개발본부장은 “이번 허가는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아시아 현지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자녀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경주 상주 인재개발원에서 ‘피닉스 슈퍼 캠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자녀 캠프 운영

가족친화 경영 강화

동아쏘시오그룹이 그룹 임직원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가족 친화 경영을 강화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피닉스 슈퍼 캠프’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지난 12~15일에는 중학생 자녀들을 대

상으로 열렸고 이어 20~22일에는 초등학교생 자녀들이 참가했다.

캠프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고 삶의 자세, 똑똑하게 학습하는 방법 등을 주제로 다뤘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8가지 습관’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고찰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함께 공유했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프렌즈’ 외연 확장

하반기 건기식·의료기기 등 출시

JW중외제약이 눈 관리 ‘프렌즈’의 의약품에서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까지 아우르는 종합 브랜드로 확장하며 메가 브랜드를 육성한다.

JW중외제약은 ‘프렌즈’ 브랜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며 제품군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눈이 건조하거나 피로할 때 사용하는 제품은 물론 눈 건강을 위한 웰니스 브랜드를 선보인다. 오는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눈 마사지 의료기기 등을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제품도 강화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표 제품군인 ‘아이드롭점안액’의 경우 지난 2013~2025년 기준, 국내 일반의약품 인공눈물 시장에서 13년 연속으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유통 채널을 확대해 소비자층을 다양하게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청하 기자

조아제약, 어린이 건기식 ‘잘크톤’ 3종 선택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 성분 각각 처방

조아제약이 어린이 브랜드 ‘잘크톤’을 확대 구축한다. 조아제약은 건강기능식품 ‘잘크톤 분말 3종’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품별로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각각 처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은 ▲잘크톤 활력N 비타민 Bکمپ렉스 ▲잘크톤 뼈건강N 칼마디아 ▲잘크톤 장건강N 프로바이오틱스 등 총 3종이다.

잘크톤 활력N 비타민 Bکمپ렉스는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 5종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을 함유한다.

잘크톤 뼈건강N 칼마디아는 유유칼슘과 포카칼슘을 배합해 뼈와 치아 형성을 돕는다. 비타민D3도 더해 칼슘 흡수를 높인다.

잘크톤 장건강N 프로바이오틱스는 유



‘잘크톤 분말 3종’

/조아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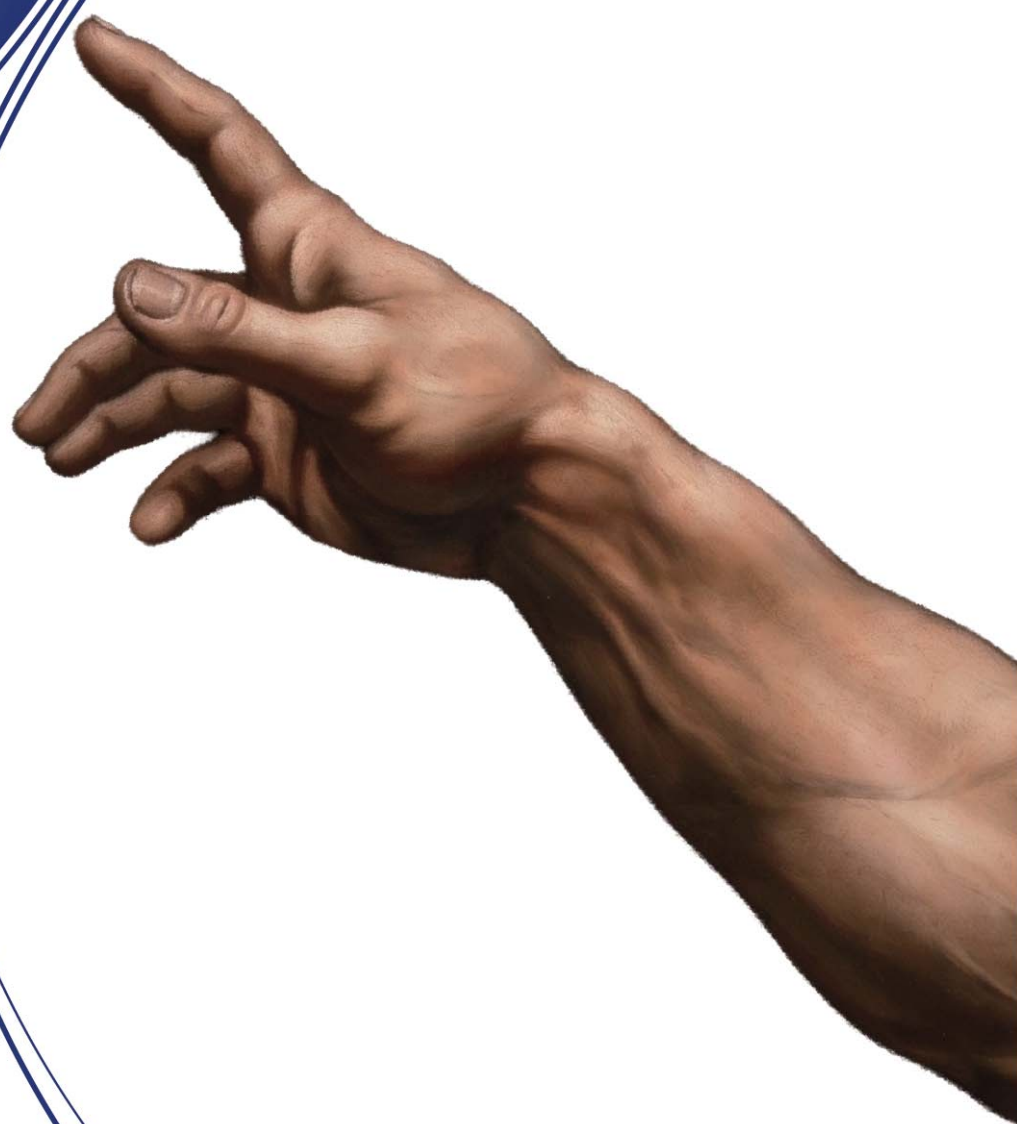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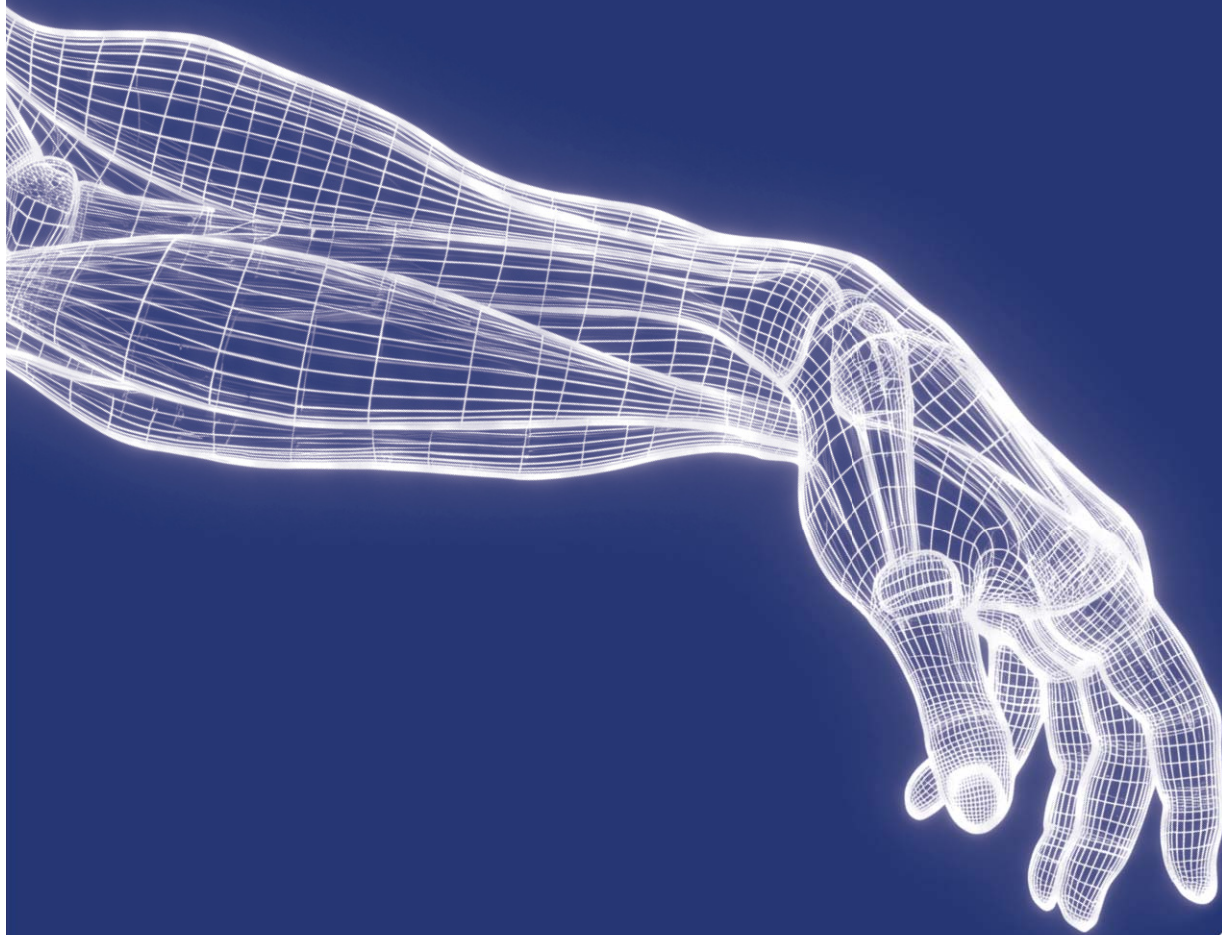
산균은 증식하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기능을 갖췄다. 유산균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산균 코팅 기술도 적용했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잘크톤 분말 3종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 영양을 위한 제품들을 지속 강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기술에 창의적 감각을 더하다

AI 초융합대학

상명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서울캠퍼스 + 천안캠퍼스

2026. 9. 7(월) 10:00 ~ 9. 11(금) 18:00



기술보증기금-하나은행, 청년기업 금융지원 맞손

기술보증기금은 하나은행과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청년기업 도약을 위한 와이-브릿지(Y-BRIDGE) 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권형택 기보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LIG, 월드비전에 자립준비청년 후원금 전달

LIG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월드비전에 후원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후원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 생계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용준 LIG 대표이사(오른쪽)와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이 후원금 전달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IG D&A



LG화학, 사업장 인근 아동에 신학기 선물 전해

LG화학은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기부Week’를 통해 사업장 인근 아동 113명에게 신학기 선물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 아동들은 책가방과 문구세트 등 필요한 물품을 직접 신청했다. 임직원들은 아이들이 전한 사연과 신청 목록을 확인한 뒤 아동들이 희망한 선물을 준비했다. /LG화학

네이버, ‘여행 커넥트’ 서비스

네이버가 크리에이터 제휴 전문 플랫폼 ‘브랜드 커넥트’의 어필리에이트 영역을 쇼핑에서 여행으로 확대한다.

네이버는 네이버 여행과 연계한 어필리에이트 서비스 ‘여행 커넥트’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여행 커넥트는 네이버 여행이 제휴사로 참여해 네이버 여행 내 상품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크리에이터는 여행사별 별도 제휴 절차 없이 여러 여행사의 국내외 패키지과 가이드투어 상품을 확인하고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인사 ◆아주경제 △북경지사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국제경제팀 차장 배인선
◆폴리뉴스 △산업정책국장 최한성

부음 ▲이강총씨 별세, 김점덕씨 남편상, 이기재(서울 양천구청장)·창재·남순·남숙·명애·명숙씨 부친상, 박민숙·김소윤씨 시부상 = 24일, 이대목동 병원장례식장 특실1, 발인 26일 오전 7시30분. 1666-5000.

▲박춘규씨 별세, 이옥호씨 남편상, 박종훈(KG스틸 GM)·박종미·박종혁(기업은행 대리)씨 부친상, 이현택(전 조선일보 기자)씨 장인상 = 24일 오전 7시,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 070-7816-0239.

신동빈 회장 아이디어, 클래식 공연으로… 4500명 한자리

〈롯데〉

롯데 ‘서머 클래식 콘서트’

‘한여름 밤의 도심 속 클래식’ 주제 롯데월드타워·몰 복합문화공간 활용

롯데는 지난 2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에서 ‘2026 롯데 서머 클래식 콘서트(LOTTE Summer Classic Concert)’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료로 열린 이번 공연에는 시민 4500여 명이 참석했다.

‘롯데가 초대하는 한여름 밤의 도심 속 클래식’을 주제로 열린 공연은 정통 클래식부터 영화·애니메이션 OST까지 다양한 곡으로 구성됐다. 지휘자 정한결과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으며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테너 존노,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 공연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롯데는 23일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에서 ‘2026 롯데 서머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했다. 무료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는 롯데타워를 찾은 시민 4500여 명이 참석해 도심 속 야경과 어우러진 클래식 공연을 즐겼다. /롯데지주

제안으로 마련됐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몰을 시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행사를 확대해 왔다.

롯데는 계절별로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참여형 문화·스포츠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봄철 시즌에는 ‘스프링 인 잠실’, 겨울에는 빛 축제인 ‘롯데 루미나리에’를 열고 있으며 ‘스카이런’과 ‘아쿠아슬론’ 등 스포츠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서머 클래식 콘서트’는 향후 여름철 정례 행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의 누적 방문객은 올해 2월 5억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방문객은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에 힘입어 600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A/S 강화

전문 엔지니어 육성·AI 기반 진단

삼성전자서비스가 전문 엔지니어 육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진단을 앞세워 에어컨 애프터서비스(A/S)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기술자격평가와 AI 원격진단, 실외기 작업 안전관리 등 에어컨 A/S 전반의 서비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엔지니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 등 9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연 2회 ‘기술자격평가’를 실시한다. 제품군별로 1~3급 자격을 부여하고 9개 제품군 자격을 모두 획득한 엔지니어에게는 최고 등급인 ‘Technical Master(TM)’ 자격을 준다. 1986년 도입한 ‘서비스 기술경진대회’도 40년째 이어지며 고장 진단과 수리 역량을 점검하고 있다.

에어컨 점검에는 AI 기술도 활용한다. 가전 제품 원격진단(HRM)을 통해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제품 상태를 분석하고 상담사가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스마트싱스 앱에서는 냉매량과 모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독케어 고객에게는 냉매 부족 등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알려주는 ‘AI 사전케어 알림’도 제공한다.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A/S 엔지니어팀이 아파트 에어컨 점검 수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실외기 작업 과정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정보를 활용해 건물별로 1인 작업 가능 여부를 사전에 분류하고 서비스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방문 인원을 지정한다. 작업 전에는 ‘안전승인센터’를 통해 설치 환경과 보호구 착용, 화재·누전 예방 조치 등을 확인한 뒤 작업 여부를 결정한다.

서비스 범위는 도서 지역까지 이어진다. 울릉도에 상설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백령도·덕적도·흑산도·비금도 등에는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제품을 점검·수리한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2025년 남해안 인근 섬 지역에서 약 5000건의 출장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한컴그룹, ‘제2회 한컴문학상’ 후원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

한컴그룹이 총 상금 6000만원 규모의 문학상을 연다.

한컴그룹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2026 제2회 한컴문학상’을 후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컴문학상은 한컴문학상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시문학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조선어연구회가 1926년 가가날(현 한글날)을 제정한 지 1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해 진행하며 지난해 보다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미래 문학 인재

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청소년·고등부 특별 공모를 신설됐다. 응모 대상도 대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총 상금은 6000만원이며, 일반·대학생부의 경우 통합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3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한다.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상금 300만원과 상패를 준다. 전 부문 당선작은 한컴문학상 수상집에 정식 출간된다.

접수는 내달 30일까지다. 심사 결과는 10월 9일 한글날에 한컴문학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조민선 기자 msjo@

중기사랑나눔재단, 폭우 피해복구 팔 건어

3000만원 상당 구호물품 지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경남 폭우 피해 이재민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900mm 이상의 기록적인 집중우로 인명피해를 비롯해 주택·도로 침수, 산사태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구호 물품은 거제시에 2000만원, 통영시에 1000만원 상당의 생수, 간편식



등 생활용품 및 필요 물품을 각 지역별 이재민 대피소에 전달했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사진)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중소기업계의 작은 정성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카카오, ‘브런치 공모전’ 작품 모집

심사체계·수상작 규모 등 전면 개편

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는 ‘제14회 브런치 공모전’을 24일 시작하고 오는 10월 18일까지 8주간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브런치는 이번 공모전부터 기존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의 명칭을 ‘브런치 공모전’으로 변경한다.

출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공모전과 수상작 자체의 가치를 높이고, 브런치만의 수상작 목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브런치가 주관하

는 외부 전문가 독립 심사 체제로 전환한다.

수상작도 대폭 줄인다. 매년 10편을 대상으로 선정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올해는 소설, 에세이·시, 종합 부문에서 각각 대상 1편을 선정하고 신인 작가상 1편을 추가해 총 4편만 뽑는다. 출판사와 작가를 연결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심사에 참여한 제휴 출판사와 작가가 일대일로 연결돼 출간 계약을 맺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브런치가 수상작뿐 아니라 부문별 최종 후보작까지 여러 제휴 출판사에 소개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애경산업, ‘에너지 절약 실천 주간’ 운영

탄소감축 문화 확산 중점

애경산업이 임직원들과 함께 업무와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지난 10~14일 5일간 사내에서 ‘에너지 절약실천 주간’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탄소감축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점심시간 동안 PC 전원을 종료하는 등 불필요한 전력 사

용을 줄였다.

애경산업은 앞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참여 가능한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하 기자 mlee236@

엄정화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박진주 려운 그리고 최수영

감독 이철하 제작 CGV 픽처스 올(OAL) 배급 CGV 픽처스 제작 올(OAL) 15세이상관람가

절찬상영중

올 여름 시원하게 OK?

오케이 마담2



우리 곁에 ‘우리’가 있다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잠시 빌려 쓰는 노동력이 아니라고 했다. 없으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인력이라고도 했다. 8월 12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장관이 한 말이다.

낮 최고기온 33.7℃의 해남, 7월 25일 그곳엔 사흘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고작 사흘째였던 대국 출신 한 이주노동자는 오전 6시 30분부터 고추밭과 배추밭을 오가며 일했다고 한다. 점심 무렵 짧은 휴식 후 땀별이 내리쬐는 오후 1시 30분부터는 다시 작업을 이어 갔다고고 한다. 두 시간 뒤 그는 밭 옆 도로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졌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의 체온은 43℃에 가까웠다. 병원으로 가는 길, 그는 숨졌다. 그의 서른여덟 정춘은 그렇게 여미어졌다. 7월 4일 충북 괴산, 11일 충남 홍성, 25일 전남 해남까지 한 달 사이 세 명의 이주노동자가 한낮의 논밭과 추사에서 숨을 거두었다. 꿈을 찾아 건너온 한국 땅은 그렇게 그들의 주검을 안게 된 비극의 땅이 되었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100

만 명을 넘어서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우리가 매일 기대어 사는 산업의 아랫단을 그들이 꼼꼼하고 단단하게 채우고 있었다. ‘우리’의 노동이 닿지 않는 자리에 그들의 노동이 있어 ‘우리’의 일상이 가능했다.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은 이어졌다. 폭염이 일상이 된 만큼 ‘괴서권’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폭염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이 실효를 가지려면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가 생계를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고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의원은 해남 사건을 두고 관리 기준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라 짚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다. 온열 질환 사망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정책이 있지만 폭염경보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폭염에서 작년까지는 없었던 가장 강력한 단계가 신설되었다. 명칭은 ‘폭염 중대경보’. 기준은 하루 체감온도 38℃ 이상으로 전국 곳곳에서 반복해서 발령되었다. 폭염의 정도도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그 위험은 점점 더 넓게 퍼지고 있다.

해남의 한 이주노동자, 그이는 우리의 언어와 제도, 그리고 폭염의 패턴도 알지 못한 채 가장 뜨거운 시간으로 밀려들어갔다. 농

축산업의 경우 고용구조의 특성상 이주노동자는 폭염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 사업장 단위로 설계된 산업안전 점검과 근로 감독은 이렇게 흩어진 작은 일터까지 촘촘히 닿지 못할 수 있다.

8월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와 국회, 그 누구도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거론하지 않았다. 기후적응 정책에서 이주노동자의 자리가 얼마나 희미한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기후위기가 낳은 이상기후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문제는 고용노동부 한 곳의 책임이 아니다. 계절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인력의 체류·관리는 법무부가, 재난으로서의 폭염 대응 체계,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몫이다.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라 말하지만 그들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한 태도가 만연하다. 태도는 제도가 되어 대부분의 정책 안에 ‘위험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

잠시 빌려 쓰는 노동’이 아닌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할 노동’을 묵묵히 수행하던, 이주노동자의 꿈이 사라진 그 맥락을 쫓아가 본다. 그 맥락의 끝에서 우리는 그이를 여전히 ‘타자’로 부르고 있는가, ‘우리’로 부르고 있는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선행학습’ 학원의 반가운 선행

〈善行〉



기 지 수 섭
이 현 진
(정책사회부)

‘선행학습’으로 이름난 수학학원 ‘생각하는 황소’가 최근 조금 다른 의미의 ‘선행’을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의 수강료를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학생뿐 아니라 앞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생각하는 황소는 서울 대치동에서 출발해 서울·경기뿐 아니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지점을 둔 수학학원이다. 매년 입학시험에 1만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이 몰릴 만큼 학부모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원하는 학생이 수강료만 내면 등록할 수 있는 학원과는 조금 다르다. 높은 입학 문턱과 심화·선행 중심의 수업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호불호도 뚜렷하다.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선행을 요구한다는 시선이 있는 반면,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에게 깊이 있는 문제를 접하게 한다는 평가도 있다.

숫자로 보면 문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학원은 매년 11월과 2월 전국 지점에서 동시에 정기 입학시험을 치른다. 지난해 11월 초등 입학시험에는 전국에서 9232명이 응시해 3571명(38.7%)이 합격했고, 올해 2월에는 5712명 가운데 2102명(36.8%)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른바 ‘황소고시’를 준비하는 학원까지 따로 있을 정도다.

이번 수강료 면제는 이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도 똑같이 시험을 보고 같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 들어올 실력이 있는 아이가 부모의 형편 때문에 그다음 문을 열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이 특히 반갑다. 선발형 학원은 기

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있어야 자리가 채워진다. 실제 편입도 ‘결원 보충’ 방식으로 운영한다. 비어 있는 한 자리를 그대로 둘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실력은 있으나 수강료가 부담스러운 아이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 생각하는 황소는 후자를 택했다.

사교육은 부모가 알미를 쓸 수 있느냐에 따라 아이가 접하는 교육의 폭이 달라지기 쉬운 곳이다. 특히 상위권을 대상으로 한 심화·선행 교육일수록 경제력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학원 하나가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실력의 문턱은 그대로 두더라도 부모의 형편이라는 또 하나의 문턱은 없앨 수 있다.

‘선행학습’을 둘러싼 평가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행(善行)이라면 더 많은 학원이 앞서가도 좋겠다.

/l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5일 (음 7월 1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입니다. 60년생 꼬여있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72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84년생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 해집니다



49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갑니다. 61년생 귀인이 생 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73년생 사업운이 좋습니다. 85년생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50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입니다. 6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습니다. 74년생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확실치 전달하도록 하세요. 86년생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 지게 됩니다.



51년생 금전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63년생 횡재를 바라게 되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75년생 투기성 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87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52년생 적은 액수의 금전도 무시하지 마세요. 64년생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세요. 76년생 다른 때보다 무척 바빠집니다. 88년생 좌우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53년생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65년생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77년생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89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4년생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세요. 66년생 눈앞에 드러나는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78년생 기다려 보세요. 90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55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67년생 마음에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습니다. 79년생 한번 서로 다툼 수 있습니다. 91년생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56년생 재수는 그래도 평탄한 편 입니다. 68년생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하게 됩니다. 80년생 깊이 개입하려 들면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92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57년생 밖으로 나아가세요. 69년생 동복 양방에 반드시 기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8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길합니다. 93년생 오늘 하루 주변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58년생 조상을 잘 모셔안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70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옵니다. 82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세요. 94년생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59년생 재물을 얻어도 꾸준히 모으기가 쉽지않습니다. 71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세요. 83년생 금전거래는 당분간 다음으로 미루세요. 95년생 즐거움은 저녁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김상회의四季 백중기도 정성

백중도 막재를 향해 가고 있다. 지옥문이 열리고 모든 인연 영가들이 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란분절(盂蘭盆節)은 석가탄신일과 함께 불가의 큰 행사일이다. 사바세계 오락악제를 살아가는 중생들은 각자의 선행 조상과 친족 연족 영가들을 위해 정성껏 과일과 꽃, 음식을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으로 모두 지옥 곁을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후손으로서의 정성을 올린다. 백중재가 또 하나 그의 미가 큰 것은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유주무주 고훈들까지 천도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백중재만큼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참하면 할수록 좋은 불가의 재(齋)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시고 나서보다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살펴드리는 것이 자손의 우선적이고도 당연한 효도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불선업을 많이 짓는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 때로는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지었을 것이다.

또한, 몸을 여윈 후에 선처에 나지 못했다면 지옥을 비롯한 사악 차를 떠도는 것이 욕계 중생들이므로 어서 빨리 불법 인연으로 다시 선처 이상에 태어나 궁극의 해탈과 열반을 얻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행복이라는 불가의 믿음이니 후손된 도리를 멀리할 수 없다. 이러하기에 해마라는 백중재를 최대한 정성스럽게, 의미 있게 지내드리려 마음을 다하고 있다. 선망 조상들, 유주무주 고훈들의 업식과 업장을 맑게 해서 해탈지경을 얻게 하는 것은 재를 주관하는 이의 도력도 도력이지만 동참 재가자들의 합일된 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출가 스님은 아니나 법상종 법사로 이를 엄연하게 인지하고 있기에 남다른 정성을 더 하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80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8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정부, 내국세 연동 폐지... 교육계 “현장수요 미반영” 반발

정부,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개편
학령인구 변화 반영 새 산식 도입
교육계 “연동제 폐지 철회 촉구”

정부가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경제 여건을 반영해 교부금 증가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줄지 않는 데다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년부터 55년간 유지돼 온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 사이의 격차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6년 43조1616억원에서 지난해 70조7542억원으로 10년간 6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662만명에서 553만명으로 109만명, 약 16.5% 감소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부금 증가폭을 줄이는 것은 실제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이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고정적인 지출은 같은 비율로 감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15년 8만 8067명에서 지난해 12만735명으로 10년

새 37.1% 증가했다.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추가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늘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다른 해석을 내놴다. 교부금 총액이 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부가 제시한 ‘내년 교부금 2조5000억원 증가’만으로 교육재정이 줄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물가와 학교운영비, 급식비,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 등

확대되는 수요까지 고려하면 명목상 총액 증가와 실제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정 증가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교육미래연대는 이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활용하면 될 일”이라며 성명을 내고 정부에 내국세 연동제 폐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교육재정을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 판단과 재정 여건으로부터 일정하게 독립시키고 유·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며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한정된 재원을 놓고 경쟁시키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 확충 책임을 교육 영역 내부의 갈등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유·초·중등 재정과 별도의 독립적 재원에 기초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대학 20곳, 내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교육부, 총 308개교 명단 발표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은 288개교
16개교, 장학금·학자금 전부 제한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학이 20곳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16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모두 제한되고, 4개 대학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 명단을 24일 발표했다.

학자금 지원 여부는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반영해 결정된다. 기관평가에서 미인증을 받은 대학은 재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장

학금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제한되는 ‘전부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전부 제한 대학은 일반대 8곳과 전문대 8곳 등 총 16곳이다. 일반대는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참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 의과학대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서영대, 송호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다.

이 가운데 서영대와 여주대는 2027학년도에 새로 전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14곳은 2026학년도에도 전부 제한 대학이었다. 광양보건대는 오는 31일 폐교 예정이다.

기관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되면 ‘일부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일부 제한 대학은 상지대, 추계예술대, 국제대, 대덕대 등 4곳이며 모두 2027

학년도 신규 지정이다.

이들 대학의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받을 수 없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한은 원칙적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다만 지난 해에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대학의 경우, 당시 제한 대상이었던 2026학년 학생들은 재학생이 된 이후에도 지원 제한을 계속 받는다. 반면 2027학년도에 처음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기존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은 모두 288개교다. 대학 기관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고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대학으로 평가된 일반·산업대 173개교와 전문대 115개교가 포함됐다.

/이현진 기자



교원보호전담관 발대식 사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원보호전담관’ 출범

사실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원보호전담관 제도를 공식 출범시키며 교원 침해 대응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조원청사에서 ‘교원보호전담관 발대식’을 열고 제도 출범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민석 교육감과 교원보호전담관 300명, 시민교원보호관, 명예교

원보호전담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마친 전담관들은 이날부터 교원 침해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지원한다.

전담관은 교원과 도민,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으로 구성돼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에 대해 사실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임진각 평화누리서 피크닉 즐기세요”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주관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경기도 문화사계 ‘가을’ 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임진각 평화누리의

넓은 잔디밭에서 돛자리를 펴고 음악을 즐기는 대표적인 피크닉형 축제다.

축제의 메인 공연은 19일 펼쳐진다. 모던록 밴드 넬(NELL)이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르며 10CM, 선우정아, 너드커넥션, 서도밴드, 더픽스 등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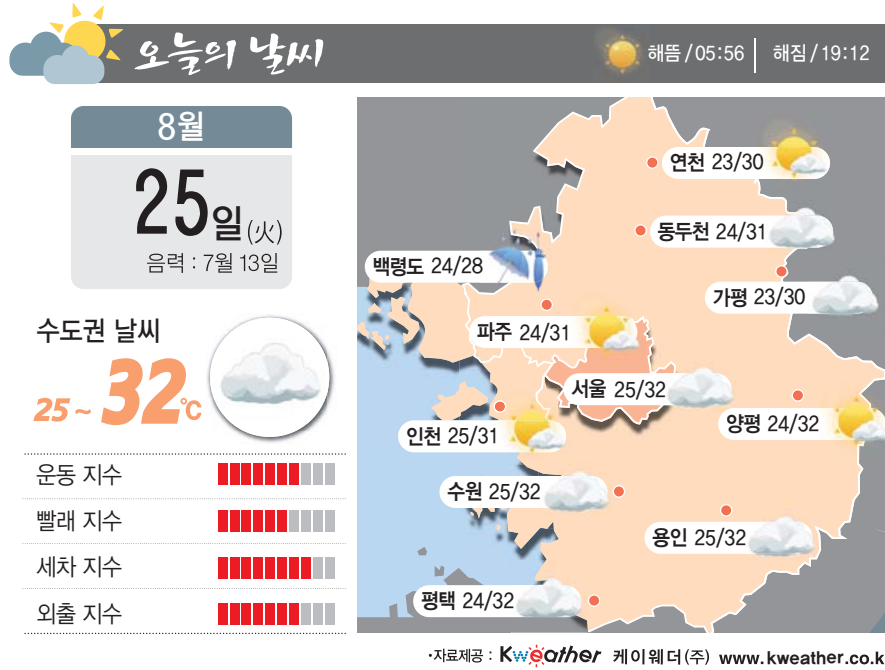
‘평화 Special Stage’에는 뮤지컬 배우 민우혁이 출연해 경기도DMZ의 평화

메시지를 담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피크닉존과 함께 무대 앞쪽에 지정석인 ‘스페셜존’을 새롭게 운영한다. 장시간 대기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개선했다.

티켓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공식 예매처인 티켓링크를 통해 판매한다.

공연과 함께 ‘평화 바람개비 만들기’, ‘티투 스티커 체험’ 등 평화 체험 프로그램과 버스킹, 요가 등 평화누리 캠핑장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푸틴 결단만 남았다...대규모 동원령 임박설에 러 내부 혼란
▲일본 3대 은행 신입 채용 5년 만에 감소...AI 효율화가 바꾼 취업 시장 /사진 뉴시스

▲日다카이치, 식품 소비세 감세에도 지지율 최저...물가대책 불만 여전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국가비상사태’ 선포 하나...우려 확산

▲러, 나토 결의 시험...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생산 유럽전역 공장 파괴하나
▲美 부채 40조달러·국채금리 19년래 최고...워시 ‘잭슨홀 시험대’



추석 앞두고
먹거리값 인상
물가 '비상'
L1

metro®

Life

가을옷 검색↑
패션업계
수요선점
L2



친환경 소재 늘리고, 꿈에 날개 달고... 첨단소재로 빛은 가치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HS효성

HS효성이 친환경 소재 개발부터 장애인 자립과 문화예술, 보훈 활동까지 사업 역량과 연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HS효성은 지난 6월 그룹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경영 방향을 구체화했다. 지속가능경영 비전으로 'Rooted in Value, Growing Together(가치를 근간으로, 함께 성장하는)'를 제시하고 ▲성장 가치 ▲공유 가치 ▲신뢰 가치를 3대 전략 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고객만족과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친환경 포트폴리오, 기후변화 대응 등 5개 중요 이슈를 선정해 그룹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친환경 소재와 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재활용 원료·고강도 소재...친환경 확대

HS효성은 첨단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저탄소순환 포트폴리오 전환에 나서고 있다. 기존 석유화학 기반 원료를 재활용 원료로 대체하고 제품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식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코드와 스틸코드, 비드와이어 등 타이어보강재를 비롯해 산업용사와 자동차용카펫 등에 재활용 원료를 적용하는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 원료 기반 제품은 전과정평가(LCA)를 통해 일반 소재를 사용한 동종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관련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도 마쳤다.

재활용 PET를 97% 적용한 산업용사는 국제 재활용 인증인 GRS(Global Recycled Standard)를 취득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을 확대해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낮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1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2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종 선수에게 탄소섬유 의족을 전달하고 있다.

소재 자체의 성능을 높여 원료 투입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UHT(Ultra High Textile) PET 타이어코드와 테데니어 타이어코드, UT(Ultra Tensile) 스틸코드 등 고성능·고강도 제품을 개발해 기존 제품보다 원료 사용량을 줄이고 타이어 경량화에 기여하고 있다.

HS효성은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 자원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룹 공통 기준인 'Global SHE 지침'을 수립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자원순환형 신성장 동력 확보', '판매 포트폴리오 전환'의 세 가지 축으로 친환경 포트폴리오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부터 문화예술까지...장애인 자립·사회참여 지원

HS효성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회사가 보유한 첨단소재 기술을 활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종 선수에게 지원한 맞춤형 탄소섬유 의족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3월 전북대학교병원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함께 제작한 탄소섬유 의족을 박 선수에게 전달했다. 의족제작에는 HS효성첨단소재의 고강성·고

첨단소재 사업 중심 저탄소 전환 나서 타이어코드 등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 소재 성능 개발로 원료 투입량 줄여

첨단소재 기술력 활용한 장애인 지원 사이클 선수에게 탄소섬유 의족 제작 장애인 위한 체육·문화활동 펼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마라톤 '815런' 후원... 임직원 동참 현충원 정화활동 등 호국보훈 실천

탄성 탄소섬유와 복합재료연구팀이 개발한 고성능·무독성 프리프로그 수지 기술이 적용됐다. 여기에 전북대학교병원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의 성형·가공 기술도 접목해 무게를 줄이고 박 선수의 신체 구조에 맞춘 의족을 제작했다.

중증 장애아동과의 인연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중증 장애아동 요양시설 '영락에니아의 집'에서 체육대회를 열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임직원들은 평소 야외 활동이 어려운 장애아동들과 일대일로 짝을 이뤄 체육 프

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했다. 후원금은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용 이너시트 교체와 특수 재활기기 구입, 시설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예술의전당에서 장애·비장애 통합 실내악 연주단 '가온 솔로이스츠'의 제7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정경'이 열렸다. 가온 솔로이스츠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무대에 선다는 취지로 2021년 설립됐다.

◆나라 위한 헌신 기억...보훈 나눔 이야기

HS효성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위한 보훈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생필품 지원부터 현충원 묘역 정화,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달 광복절을 맞아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열린 한국해비타트의 기부 마라톤 '2026 815런'을 후원했다. 지난 2024년부터 3년째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임직원들도 직접 행사에 동참했다.

815런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시작된 행사다. 참가비와 기업 후원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주택 건립과 보수에 사용된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나눔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HS효성은 지난 2015년부터 서울남부보훈지청을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와 재가복지대상자에게 '사랑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들도 보훈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HS효성 임직원 20여명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독립유공자와 임시정부 묘역 일대에서 묘비 닦기와 잡초 제거 등 정화 활동을 펼쳤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실천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3 HS효성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1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역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4 HS효성첨단소재가 광복절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열리는 한국해비타트 '2026 815런'을 3년 연속 후원했다.



/HS효성

메트로 한줄뉴스



▲'회오리 감자' 롯데 손성빈, 7월 월간 씬-스틸러 상 수상
▲김세영, LPGA 투어 CPKC 여자오픈 3위...야마시타 시즌 2승
/사진 뉴스스

▲'안세영 선봉' 한국 배드민턴 전성기 활짝...세계선수권 종합 1위 달성
▲오타니, 다음 주 홈에서 선발 복귀 가능성 ↑...실전 빌드업 예정

▲U-18 농구 대표팀, 뉴질랜드에 잡혀 아시아컵 4위 마무리
▲임성재, 8년 연속 PGA PO 최종전 무산...김시우·김주형은 진출